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차 경 욱 교수지도

석사학위 청구논문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자금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

2008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미연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자금과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연구

차 경 욱 교수지도

이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2008년 5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박미연

認 准 書

박미연의 석사학위 논문으로 認准함.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審査委員 _____ 印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개요

최근 고용불안, 불안정한 연금제도,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저금리로 인해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지만 생활 주기 상에 있어 가장 마지막 시기인 노후준비는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자녀교육비가 과다하게 지출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노후준비에 있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교육비 부담이 노후불안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 부담과 노후준비자금을 함께 다룸으로서, 자녀학령기 가계의 재무행동을 파악하고 두 가지 재무목표를 연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실태와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알아보고,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노후준비 특성, 사교육비 지출특성을 비교하며, 나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서울 및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는 첫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을 둔 304가계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통계적 자료 분석 방법으로는 빈도분석, t검증,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보면 80%가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가구주의 퇴직제도가 있는 가계가 6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평균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68%정도로 조사되었다.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대상으로는 한 달 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노후준비자금에

있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역시 노후준비만족도에 있어 불만족하다는 비중이 높았다.

둘째, 자녀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살펴보면 자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약 44만원이고, 첫 자녀의 초등학생 사교육비는 약 35만원, 첫 자녀의 중학생 사교육비는 약 48만원, 첫 자녀의 고등학생 사교육비는 약 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 부담에 대한 평가는 3.8점(5점 만점)으로 부정적인 것을 알 수 있고, 사교육 의향에 대한 평가는 3.56점(5점 만점)으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액의 17%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사교육 지불방법으로 대체적으로 생활비를 줄이거나 저축한 돈을 통해서 혹은 부업 및 새로운 직장을 통해서 사교육을 마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 교육수준이 대졸 이하인 가계가, 월평균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구주의 퇴직금 제도가 없거나, 학령기 자녀수가 많을수록, 은퇴 후 기대경제 수준이 현재가 더 높은 집단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이 적고, 노후준비자금과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지출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많고, 사교육비 지출부담 정도가 크며, 사교육비 증액 의향 역시 높으며,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부업 및 새로운 직장을 얻은 등 다른 지불 원천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가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월 평균소득, 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사교육비 증액의향, 생활비 감액 여부, 부업 유무에서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자녀학령기 가계는 대부분 노후준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규모나 방법 측면에서 불충분,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이나 투자액을 줄인 가계가 75%를 상회하는 결과는 자녀교육비 부담이 기본적인 생활권이 축소시킬 만큼 심각한 재정적 부담을 의미하며,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의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이 그렇지 않은 가계 보다 유의하게 적고, 노후준비자금과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역시 사교육비 부담이 노후준비를 희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녀학령기 가계에서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자금이라는 두 가지 재무과업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노후준비와 사교육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바람직한 재무설계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목 차

논문개요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목적	4
II. 이론적 배경	6
1. 자녀학령기 가계의 특성	6
1) 자녀학령기 가계의 구분	6
2) 자녀학령기 가계의 재무목표와 재무행동	8
2. 은퇴설계와 노후준비자금	10
1) 은퇴설계의 의의	10
2) 노후준비자금 현황	12
3) 은퇴설계와 노후준비자금 관련 변인 고찰	15
3. 사교육비 지출	18
1) 인적자본투자자와 사교육비	18
2) 사교육비 지출 관련 변인 고찰	21
4. 노후준비자금과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26
III. 연구방법	29
1. 연구문제	29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30
3. 측정도구의 구성	30
4. 분석방법	32
IV. 연구결과	33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3
2.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와 사교육비 지출특성	36
1)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36
2) 자녀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41
3.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비교	45
1) 일반적 특성비교	45
2) 노후준비 특성비교	48
3) 사교육비 지출 특성비교	51
4.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54	
V. 결론 및 제언	57

참고문헌

Abstract

부록

표 목 차

<표 1> 자녀학령기 가계 구분	8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35
<표 3> 자녀 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특성	40
<표 4> 자녀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특성	42
<표 5> 자녀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감액한 생활비 항목	43
<표 6> 자녀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감액한 저축/투자 항목	44
<표 7>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 의 일반적 특성비교	47
<표 8>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 의 노후준비 특성비교	50
<표 9>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 의 사교육비 지출 특성비교	53
<표 10>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 로지스틱 회귀분석	56

I. 서 론

1. 문제제기

의료기술의 발달,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인구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 1981년 통계자료에 따르면 남자의 평균수명은 62.3세, 여자의 평균수명은 70.5세였다. 하지만 25년이 지난 2006년 자료에 따르면 남자는 76.4세 여자는 84.4세로 각각 14년 정도 평균 수명이 증가했다. 2년에 1세씩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추세로 볼 때 지금의 30~40대가 노후를 보낼 30년 후에는 평균수명이 90세, 100세 시대가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오용준·이영주, 2007). 즉, 은퇴를 하고 30년 이상을 일정한 수입 없이 보내야 하는 것이다. 또한, IMF이후 평생직장이라는 개념이 사라지고, 고용불안이 심화되면서 조기 은퇴가 늘어나고 있고, 불안정한 연금제도와 물가의 지속적인 상승, 저금리로 인한 경제적 상황이 급격하게 변함에 따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 부각되면서 최근 은퇴설계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학령기 자녀를 둔 30-40대는 인간의 생활 주기 상에서 개인적인 활동이나 사회적인 활동의 절정에 있으면서 동시에 인생 후반부로의 진행을 준비해야한다. 자녀의 성장 및 가족 생활의 안정에 대한 책임을 이행하고, 그 다음으로 은퇴준비를 하여 노후 생활에 대한 대책을 미리 계획하고 준비해야하는 중요한 시기인 것이다. 이 시기에는 대부분 사회경제적 지위가 상승하는데, 이 시기에 적절한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지은, 2000).

대한상공회의소(2006)가 20~5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노후준비자금을 마련하고 있다는 응답이 64.6%로 2004년 조사결과 보다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조

사에서도 조사대상 가구의 69.5%가 노후를 위해 재정적인 대비를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지만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조사대상자의 78.9%가 현재의 준비규모가 부족한 수준이라고 답하였다. 과거에 비해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해 관심을 갖고 대비하고 있지만, 아직은 준비하는 가계의 비율과 준비자금 규모 모두 상당히 부족한 실정이다.

은퇴설계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 재무목표임에도 불구하고, 자녀양육 및 교육, 내 집 마련 등과 같이 시기적으로 먼저 출현하는 재무목표들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과도하게 이루어지는 자녀 교육비 지출이 가계경제에 큰 부담을 주며, 장기 재무목표의 실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자녀학령기 가계의 지출구조를 살펴보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이 자녀교육비이다(김연화, 1992). 우리나라 월평균 소비지출 대비 자녀교육비 지출을 살펴보면, 5년 사이 가구당 월평균 소비지출은 18.2%증가한 반면, 사교육비의 증가율은 32.7%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파이낸셜 뉴스, 2007년 11월 20일). 또한, 사교육비의 증가율은 임금상승률의 3배 이상에 이르는 심각한 수준이다(한국교육개발원, 2004). 이처럼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교육비가 더 증가하고 있으니 저축을 늘리는 것은 생각도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청(2007)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00년 12조 원에서 2007년 20조 400억 원으로 증가했으며,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원 8000원, 사교육비 참가율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은 학년이 올라갈수록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이처럼 급증하는 사교육비 부담은 가계의 정상적인 소비지출과 저축을 위축시키고, 노후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을 감소시켜, 결국은 노후생활에 까지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최근 하나은행과 한국갤럽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만 35~49세의 은퇴잠재자 중 59%가 ‘은퇴 준비를 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는데, 은퇴 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는 47.8%가 ‘경제적 여력이 없기 때문’이었고, 경제적 여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는 61.9%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었다. 그러나 자녀교육비 때문에 은퇴준비를 할 경제적 여력이 없다고 답한 응답자의 73.3%는 자녀교육비를 줄일 의향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경향신문, 2007년 7월 3일자; 한국일보, 2007년 7월 3일자). 이러한 결과는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교육비를 줄일 수도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50-70세를 대상으로 한 최현자(2007)의 연구에서는 은퇴준비를 하지 못한 이유로 생활비 부족과 자녀의 교육비 및 결혼자금 때문에 여력이 없다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미혼자녀 또는 학업 중인 자녀가 있는 경우 은퇴 이후에도 재정적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전국 1,012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현대경제연구원(2007)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가구의 76.8%가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없을 경우 그 금액을 어떤 항목으로 대체하겠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57.2%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Todd와 DeVaney(1997)는 대학생 자녀를 둔 부모들을 대상으로, 자녀의 대학교육 비용을 지불하기 위해 노후준비자금 저축분을 사용했는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24%가 그렇다고 답하였다. 또한 자녀의 대학교육비용을 주요 재무목표로 다루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대학등록금 뿐 아니라, 대학을 들어가기 전 까지 과도한 사교육비가 들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 부담이 노후불안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 부담과 노후준비자금을 함께 다룸

으로서, 자녀학령기 가계의 재무행동을 파악하고 두 가지 재무목표를 연관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즉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실태와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알아보고,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많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노후준비특성, 사교육비 지출특성을 비교하며, 나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자녀학령기 가계에서 사교육비 지출과 노후준비자금이라는 두 가지 재무과업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어떠한 문제점이 있는지에 대해 논의함으로써, 자녀학령기 가계의 재무행동에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자녀학령기 가계가 추구해야 하는 재무목표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노후준비와 사교육비 문제를 동시에 고려하여 보다 바람직한 재무 설계의 방안을 모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는 현재와 미래의 자녀학령기 가계 구성원들, 바람직한 은퇴설계를 조력해야 하는 공공기관과 금융기관, 나아가 사교육 관련 제도와 정책 입안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연구목적

사회적·경제적 변화요인으로 인해 노후준비에 대한 인식이 점점 확산되면서 은퇴설계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역시 강조되고 있다. 하지만 은퇴설계는 자녀양육 및 교육, 내 집 마련 등과 같이 시기적으로 먼저 출현하는 재무목표들 때문에 자꾸 미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녀학령기 가계가 은퇴 후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자녀학령기의 재무문제에 대해 재인지하고자 한다. 자녀학령기 가계의 재무과업 수행실태를 파악하고 문제점을

진단하며, 바람직한 방향성을 제안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궁극적으로 은퇴 후 생활에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여부, 방법, 규모, 만족도 등 노후준비 실태가 어떠한지 파악하고, 사교육비 지출규모, 부담정도, 지불 원천 등 사교육비 지출 실태는 어떠한지 파악한다. 둘째,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노후준비특성 및 사교육비 지출특성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다. 셋째,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무엇인지 분석한다.

II. 이론적 배경

1. 자녀학령기 가계의 특성

1) 자녀학령기 가계의 구분

남녀가 결혼으로 새로운 가족을 형성하고 자녀를 갖게 되면서 가족은 확대되고, 그 자녀들이 성장한 후 결혼하여 자신들이 자라온 가족을 떠나게 되면서 가족은 축소하기 시작하며, 노부부가 사망함으로써 소멸하게 된다. 이와 같이 결혼, 임신, 출산, 육아, 자녀교육, 자녀독립, 은퇴 후 노후 생활 등 가족생활의 변화 과정을 가족생활주기(family life cycle)라고 하는데, 가족생활주기는 가정생활에서 각 단계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각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정생활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설정하는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조희금, 1984)

최초로 가족생활 주기를 구분한 Rowntree(1906)는 노동자 가족의 수입을 중심으로 가족생활 주기의 단계를 3단계로 구분하였고 Glick(1977)은 부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7단계로 구분하고, 1890년, 1940년, 1950년도를 비교함으로써 가족생활 주기의 변화를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이행옥 재인용, 1989) 자녀생활주기를 자녀의 조기독립을 목표로 하는 서구의 핵가족을 기준으로 분류한 Duval(1977)은 신혼부부, 자녀출산 및 영아기, 자녀유아기, 자녀학령기, 자녀청년기, 중년기, 노년기로 총 8단계로 구분하였는데 가족생활 주기를 가장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체계화했다.

가족생애주기 단계 중에서 자녀교육이 주로 이루어지는 시기는 주로 30대 후반 부터 50대에 해당하는데, 가족성장기 혹은 자녀학령기로 지칭되고 있다. 일반적인 생애주기를 가계재무관리 측면에서 재구분하여 재무생애주기를 제시한 Mittra(1995)의 구분에 따르면, 이 시기는 가속기

(Acceleration stage)에 해당하는데, 연령은 주로 35세에서 55세이며, 자금의 여유가 있으므로 전 단계에 비해 위험부담이 높은 자산에 투자하여 보다 높은 투자수익을 기대하고 자산의 성장을 주목적으로 하는 시기로 보았다. 자녀의 교육수준에 따라 구분한 장명욱(1981)은 신혼기, 자녀출산 및 미취학 아동기, 초등학교기, 중고등학교기, 대학 및 직장 적응기로 세분화 하였다. 가족생활 주기는 가족형태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본 이행옥(1989)은 두 사람이 결혼하여 가정을 형성하고 기틀을 확립시키는 가족형성기, 자녀를 낳아 성장시키는 확대기, 성인이 되어 자녀들이 독립하기 위해 가정을 떠나고 노부부만 남는 축소기의 3단계로 구분하였다.

가족생활주기를 우리나라 가정생활실정에 가장 잘 맞도록 세분화한 유영주(1984)는 형성기, 자녀출산 및 양육기, 자녀 교육기, 자녀성년 및 결혼기, 노년기로 5단계로 구분하였고, 이은실과 최현자(1998)는 유영주가 구분한 5단계를 기본으로 하여 가구주의 연령, 첫 자녀의 교육상태, 첫 자녀와 막내자녀의 결혼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형성기, 첫 자녀미취학기, 첫 자녀 초등학교기, 첫 자녀 중 고등학교기, 자녀 성년 및 결혼기, 노년기로 6단계로 구분하기도 했다. 한편 농가주부를 대상으로 한 배희선과 최현자(1996)는 가정생활주기를 자녀교육비로 인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파악하기 위해 형성기, 자녀교육 전반기, 자녀교육 후반기, 자녀교육 종료기로 4단계로 구분했다. 이렇듯 가족생활주기를 분류하는 것은 학자마다 세부적인 차이가 있지만 주로 자녀의 연령 및 자녀의 존재와 관련해서 가정생활주기가 구분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영주의 분류에 기초(표1참고)하여 생애주기에 있어 교육비 지출이 비교적 높게 차지하는 III단계, 첫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시기에 있는 가계를 자녀학령기 가계로 명명하고, 연구대상으로 삼고자 한다.

<표 1> 자녀학령기 가계 구분

I 단계 (형성기)	결혼부터 첫 자녀의 출산전시기
II 단계 (자녀출산 및 양육기)	첫 자녀 출산으로부터 첫 자녀 초등학교 입학 전 시기
III 단계 (자녀 교육기)	첫 자녀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시기
IV 단계 (자녀성년 및 결혼기)	첫 자녀의 대학교육, 취업, 군복무, 가사 협조시기와 첫 자녀 결혼부터 막내자녀 결혼시기
V 단계 (노년기)	막내 자녀의 결혼 이후시기

자료: 유영주 외.(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 p111-129.

2) 자녀학령기 가계의 재무목표와 재무행동

가계는 가정생활주기를 거쳐 가면서 자녀의 출산 및 양육, 주택구입, 자녀교육, 자녀 결혼, 은퇴 등과 관련된 재무목표에 직면하게 된다. 연령에 따라 가장 일반적인 주요 재무목표들을 열거하면 20대는 취업, 결혼, 30대는 자녀출산, 주택마련, 40대는 자녀교육, 노후자금준비, 50대는 자녀교육, 자녀결혼, 노후자금준비, 60대는 퇴직과 연금관리이다. 가계는 이러한 재무목표를 달성하고,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재정목표에 적합하게 자산을 구성하게 된다. 자녀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40대, 50대로 가족성장기로 구분되며 또한 이시기는 노후자금 준비가 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기도 하다(여윤경·오정근, 2005).

자녀학령기 가계의 주요 재무 목표를 살펴보면, 범수인과 문숙재(1992)의 연구에서는 자녀학령기 가계의 경제목표로 교육비문제와 노후생활문제를 들 수 있는데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문제가 자녀교육비문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시기 가계의 주부연령은 30대, 남편의 연령은 40

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고, 장기생활설계연구를 한 김병주(1980)의 연구에서도 40대 이후인 가구주의 재무목표는 자녀들의 교육문제로 나타났다. 40, 50대를 대상으로 한 홍향숙(1997)은 주택마련과 자녀교육비로 재무목표를 산정하여 이에 대한 계획과 수행으로 측정할 바 있다. 또한 가계의 재정목표, 문제 및 만족도에 관하여 질적 접근 방법을 적용한 연구도 나타났다는데, 백은영과 문숙재(2005)는 초등학교와 청소년기 자녀를 둔 가계를 확대2기로 명명하고 이시기의 자녀교육비를 1차적인 재무목표를 자녀교육비로 꼽았으며 장기적으로는 은퇴준비나 주택마련에 따른 대출금 상환이 재무목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연구에서 보듯이, 자녀학령기 가계의 주요 재무목표는 자녀교육비와 노후자금마련이지만 주로 1차적인 목표는 자녀교육비인 것을 알 수 있다.

IMF 경제위기 이전과 이후의 가계포트폴리오 변화 행동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에 해당하는 가계의 특성을 분석한 최현자와 박주영(2002)은 현재 가계포트폴리오 유형을 유동성 중심형, 자산증식 중심형, 보험연금 중심형으로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고 초등학생자녀기 가계는 보험 연금 중심형이, 중등학생자녀 가계는 자산증식 중심형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0-40대를 대상으로 가계의 포트폴리오를 5가지 유형으로 구분한 여윤경(2005)은 부동산 집중형 36%, 저축집중형 22%, 투자 집중형 14%, 부채축적형 5%, 기타 23%인 것으로 부동산에 집중하고 있는 가계의 비중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실과 최현자(1998)는 가정생활 주기에 따라 은행 요구불 예금, 은행 저축성 예금, 주식, 채권, 생명보험, 연금, 계, 사채, 부동산 총 9개의 포트폴리오 구성요소별을 분석하였는데 형성기에서 첫 자녀 미취학 기까지 포트폴리오 구성의 다양성이 증가하다 노년기로 갈수록 보유자산의 종류가 줄어들며, 첫 자녀 초등학교기에 13.8%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은퇴설계와 노후준비자금

1) 은퇴설계의 의미

Ando와 Modigliani(1963)에 의해서 제창된 소비이론인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사람들은 대체로 남은 평생을 염두에 두고 현재의 소비를 결정한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의 소득수준은 일생의 단계에 따라 다른데 학교교육을 받은 유년기에는 노동시장에 아직 진입하지 못했으므로 소득이 없거나 적은상태이지만, 중년기는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시기로, 이 기간에 가계는 보다 많은 저축을 한다. 즉, 가계의 순자산규모는 가구주가 은퇴하기 직전에 가장 높은 수준이고, 은퇴하면서 다시 소득보다 소비수준이 높아지게 되면서 감소하는 모습을 보인다. 생애주기가설은 개별가계의 소비와 저축행동이 생애효용을 극대화시키는 방향으로 항상 합리적으로 계획되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은퇴설계(retirement planning)는 경제활동을 할 때와 같은 수준의 생활을 은퇴 후에도 계속 유지 할 수 있도록 경제활동 기간 중에 노후생활을 계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을 말한다. 즉, 근로소득이 없는 은퇴 이후의 생활을 풍요롭게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는 계획수립 과정이다. 이러한 은퇴설계의 의미는 생애주기가설의 기본가정과 일치한다.

2006년 현재 평균퇴직연령은 54세이고, 평균수명이 80세 전후이지만(통계청, 2006) 앞으로 20년 이내에 평균수명은 100세를 넘을 것으로 보인다(경향신문, 2008년 4월15일자). 따라서 필요자금의 확보와 은퇴 이후의 생활을 고려하지 않는 한 심각한 빈곤과 생존 위협에 처할 수밖에 없고 은퇴 후 원하는 기대수준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은퇴설계는 전 생애에 걸쳐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영역이다.

Elder와 Rudolph(1999)는 미국 HRS자료에서 은퇴설계와 은퇴만족도간의 관계를 분석했는데 은퇴설계를 하는 은퇴자가 은퇴에 대해 더욱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최현자(2007)의 연구에서도 은퇴 재무 설계가 은퇴대비나 은퇴자들의 주관적인 재정적 복지를 증진시키는데 기여하는 바가 크기 때문에 생애주기 전 단계에 걸쳐 은퇴 재무 설계는 이루어져야 한다고 하였다(임경자, 2002에서 재인용).

윤숙현(2002)은 노년기를 위한 재무설계는 은퇴예정연령, 평균기대수명을 기초로 한 은퇴 후 생존기간, 은퇴 후 생활비, 인플레이션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하여야 하며, 생활자금, 자녀교육 및 결혼자금, 주택관련 자금 등 제반가계의 재무 목표들을 확인하고, 이 목표들 간의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각 목표의 우선순위에 기초한 필요자금을 산출해야 한다고 하였다. 이렇듯 노년기 재무 설계는 가계의 재무목표 설정으로부터 시작한다는 점에서 각 가정의 가치에 기본을 두고 있으며, 한 시점에서 완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전 생애에 걸친 장기적 작업이라 할 수 있다고 보았고, 주소현(2007)은 은퇴설계의 개념을 가계가 가지고 있는 자산의 적정한 관리를 통해서 재정적 목표 뿐 아니라 비재정적 목표를 포함한 것을 이루도록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고 보았다.

현재 우리 사회의 많은 노인들은 생리적 노화과정과 더불어 질병의 문제로 고통 받으며, 사회적 역할이 주어지지 않은 채 심리적 고립감속에서, 경제적으로 궁핍함을 경험하고 있다. 이들 문제 중에 우선적으로 경제적 자원이 잘 갖추어 진다면 다른 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은퇴 재무 설계는 특히 중요하다며 풍요로운 노년기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가족생활주기 전 단계에 걸쳐서 치밀한 가계재무 설계가 이루어져 한다. (윤숙현, 2002). 이처럼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소득을 생애별 목표에 맞게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은퇴 후 삶의 질이 크게 좌우될 수

있다.

2) 노후준비자금 현황

노후준비에 대한 연구들의 추세를 살펴보면, 1980년대부터 장기생활설계를 위해 가계소득과 지출을 분석하여 가계경제계획을 세운 김영숙(1983) 연구를 시작으로 그 후 은퇴 후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의식에 대한 문제(임정빈·손선경, 1985), 도시중년기가계를 대상으로 한 노후생활계획에 관련한 연구(김성숙·박운아, 1992; 이지은, 1999)들이 이루어져 왔다.

전반적으로 노후생활에 초점을 두고 있던 연구들은 2000년에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IMF로 인한 조기퇴직으로 인해 은퇴문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면서 노후준비와 노후자금에 대한 연구들이 시작됐다.

윤숙현(2002)은 노후 자금 준비의 중요성 초점을 맞춰 노후자금을 효율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으며, 여윤경(2005)은 한국의 중산층 가계가 고령화로 길어진 노후기간을 충분하게 지낼 수 있을 정도로 노후자금을 적정한 수준으로 하고 있는가를 점검했으며, 지영숙과 최보아(2002)는 경제적인 측면만으로 한정하지 않고 현재 은퇴기 가정의 생활설계를 위한 척도의 개발을 실시, 인간관계, 역할수행, 경제, 신체 심리 건강의 4가지 측면으로 영역을 나누었고 홍성희·김순미·김혜연(2006)은 은퇴 후 생활설계를 경제생활설계, 주거생활설계, 여가생활설계, 가족생활설계의 5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노후설계를 하였다.

특히, 2000초반에는 인터넷의 발달로 인해 인터넷상의 재무 설계를 분석한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김경자(2001, 2003)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상에서의 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재무설계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관련 사이트들이 재무 설계와 관련하여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파악했으며, 양세정(2001)외는 소비자 재무 설계를 위해서 인터넷

서비스 산업 유형별 현황 분석을 하기도 했다.

앞에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은 주로 곧 은퇴를 앞두고 있는 중년기 대상이었는데 노후준비는 가정의 재무목표설정에서 시작한다는 점에서 한 시점에서 완성될 수 없는 전 생애에 걸친 장기적인 설계로 인식되면서 젊은 남성 직장인을 대상으로 혹은 20~30대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들도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노후준비 방법을 보면, 최근 만 35~49세(은퇴 잠재자)와 퇴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은퇴 잠재자와 은퇴 생활자 모두 은행 예·적금/ 보험 상품/ 간접 투자 상품에 가입하고 있으며, 은퇴 잠재자의 경우에는 특히 보험 상품 가입과 부동산 투자를 은퇴준비와 관련이 더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나은행·한국갤럽, 2007)

20~50대를 대상으로 한 대한상공회의소(2006)에 따르면 노후대책 수단으로는 저축(21.4%)을 가장 많이 꼽았으며 다음으로 개인연금(19.9%), 퇴직금(18.6%), 국민연금(15.6%), 부동산 임대수익(8.8%), 주식(5.6%) 등의 순으로 응답했다. 특히 50대에서는 부동산 임대료가 17.2%로 조사되어 노후대책 수단으로 부동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 40대가 90%를 차지하고 있는 김성숙과 박운아(1992)도 노후준비방법으로 금융저축을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0세-71세를 대상으로 한 최현자(2007)의 연구에서는 노후준비수단으로 1순위로 부동산운용이 29.8%, 공적연금 25.0%, 예·적금, 저축성 보험 18.8%로 나타났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을 보면, 노후준비여부와 상관없이 가장 효율적인 노후준비방법으로 공적연금과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이 조사되었다.(주소현; 2007; 삼성경제연구소, 2007; 차경욱 외, 2007)

삼성경제연구소(2007)에 따르면 노후에 대비하고 있는 가구 중에 42.8%가 연금을 주된 노후대책 수단으로 지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국민

연금과 개인연금이 21.9%와 20.9%를 차지하고 있었다. 40-70세를 대상으로 한 Todd와 DeVaney(1997)는 연금을 가지고 있는 남편이 좀 더 노후준비에 있어 만족하는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2006)에 따르면 노후준비 필요자금으로 3억-4억 미만이 30%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도시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한 김성숙과 박운아(1992)의 연구에서는 월평균 노후준비자금은 18만 원 정도이며, 10만원 미만이 과반 수 이상으로 지출하고 있었고, 5만원 미만도 25%로 대부분 적은 액수를 노후준비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나은행과 한국 갤럽(2007)조사에서는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35-49세를 대상의 약 70%정도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응답했으며 특히, 노후생활에 대해 풍족한 생활을 기대하고 있는 경우에는 노후준비가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기본적인 노후생활을 기대하는 경우에는 노후준비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노후대비가 충분하다는 응답한 비중이 높았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노후소득 충분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살펴본 추소현(2007)는 남성 가구주, 가구주가 대졸이상, 가구주의 연령이 많을수록, 월세보다는 전세에 소득 및 금융자산이 높은 경우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연구에서는 노후대비를 하고 있는 가계의 80%가 현재의 노후대비가 은퇴 후의 생활에 부족하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가 만족하지 못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은퇴 후의 생활비로는 은퇴 전 소득의 절반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은퇴 후 생활비가 은퇴 전 소득의 약 41-60%수준에 이를 것으로 응답한 가구가 약 52%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는데, 추소현(2007)의 연구에서는 근로소득자의 75%가 현재 지출수준보다 낮은 금액을 예상생활비로 측정하고 있었고 25%정도만 현재수준보다 높게 생활비를 측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은퇴설계와 노후준비자금 관련 변인 고찰

① 연령과 자녀수

연령이 높을수록 노후준비가 높다는 연구는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김순미·양정선, 1994; 이지은, 1999; 임경자, 2002; 홍성희·곽인숙, 2006·2007), 이는 은퇴가 가까워질수록 노후 준비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김성숙과 박운아(1992)는 주부의 연령이 많을수록 노후준비를 많이 하고 있고 김은정(1993)은 남편의 연령에 따라 노후재정계획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선경과 임정빈(1985)의 연구에서도 노후생활을 위해 실제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는 비율이 연령이 높은 층일수록 높아지고 있었으나, 45세 이상부터는 그 비율이 낮아졌는데 그 이유로는 40-50대 초반의 시기는 경제적으로 자녀들의 학비문제와 자녀들의 결혼 문제 등 지출이 가장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실제로 자신을 위한 노후대책을 세울만한 여유가 없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하지만 젊었을 때부터 은퇴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는 인식변화가 일어나면서 노후를 준비하는 직장인들이 20대 48.9%, 30대 64.8% 로 불과 2년 전에 비해 2배로 늘어났으며(대한상공회의소, 2006), 20-30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차경욱 외(2007)의 연구에서도 은퇴준비를 하고 있는 집단이 50%로 30대의 근로자들이 은퇴 후 생활을 위해 재정적 준비를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소비자태도조사(2007)에 따르면 노후대책을 준비 중인 응답자의 비율이 40대와 30대에서 각각 높고 그 뒤로 50대, 20대 순으로 나타났다. 이런 것으로 볼 때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은퇴설계에 대한 중요성이 인식되면서 전 연령층에서 노후를 준비하고 있는 직장인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자녀수가 적으면 그만큼 교육비가 줄어들게 되는데, 중년기 가계를 대상으로 한 김은정(1993)연구에 따르면 자녀수가 적을수록, 노년기 대비 재정계획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② 가구주 교육수준과 직업

교육수준은 가계의 소득획득 능력을 나타내준다. 계선자(1989)는 교육수준이 노년기를 위한 계획수립여부에 유의미한 정적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제시하고, 임장순(1990)의 연구에서도 교육수준이 높으면 소득도 높기 때문에 자녀에게 노후를 의존하지 않기 위해서 경제적 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김성숙과 박운아(1992)의 연구에서는 주부의 교육수준은 주관적 노후준비행동에 부적인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손선경과 임정빈(1985)은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인 계획의 수립목적이나 노후생활 설계에 있어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종교 및 취미생활, 사회적인 단체의 가입 등 자신의 노후생활을 보람 있게 보내려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의 재무구조와 직결되는 가구주의 직업을 살펴보면 전문 관리·기술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관리직, 사무직인 가계보다 경제적인 노후준비를 빨리 시작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성숙·박운아,1992; 윤숙현, 2002; 차경욱, 2007). Moen.외(2006)는 비영리 조직이나 공무원에서 근무하는 가계들이 은퇴계획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③ 가계소득과 주관적 경제수준

연령의 증가에 따라 근로소득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최대의 수입을 올리게 되다가 은퇴와 함께 제로상태가 된다.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가계소득이 노후준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이 높을수록 노후 준비를 하는 경향이 더 높다는 것이다(계선자, 1989; 김성숙·박운아, 1992; 지영숙·최보아, 2002; 배문조·전귀연, 2004; 삼성경제연구소, 2007).

손선경과 임정빈(1985)는 고소득층일수록 노후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스스로 해결하겠다고 하는 자립형이 많았고, 실제적인 노후경제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미와 양정선(1994)은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집단의 소득평균이 비 계획집단의 소득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홍성희와 곽인숙(2007)의 연구에서도 자산과 소득이 많은 집단이 노후에 대하여 미리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후대비의 가장 큰 제약요인이 부족한 소득 때문이라고 보고된 소비자태도조사(2007)의 결과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다. 소득계층이 높을수록 노후대책을 준비하고 있는 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소득계층 1분위와 2분위에서는 전체평균(69.5%)을 하회했고, 소득계층 3분위, 4분위와 5분위에서는 전체평균(69.5%)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삼성경제연구소, 2007). 한편, 홍성희와 곽인숙(2006)은 남성보다 여성의 경우에 소득수준에 의해 노후 준비가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고한 바 있다.

김성숙과 박운아는(1992) 중년기의 노후생활 경제적 수준에 대한 기대를 측정하였는데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가 중간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지은(1999)은 현재가계의 경제 상태와 앞으로 5년 후의 경제 상태에 대해 심리학적인 변인으로 파악하여 노후생활계획 및 만족도에 대해 연구했다.

3. 사교육비 지출

1) 인적자본투자와 사교육비 지출

인적자본(human capital)이란 기계설비 등과 같은 물적 자본이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간에게 내재하되 장기간에 걸쳐 형성되고 생산성을 높이는 기술, 경험, 지식, 건강 등을 통칭한다. 인적자본의 가치는 노동력의 질적 측면을 의미하는 것으로, 생산력에 대한 대가로 받는 임금과 같이 측정 가능한 단위로 표현된다(Becker, 1964; Mincer & Polachek, 1974; Schultz, 1961).

인적자본은 특성상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지며, 미래의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인적자본의 축적을 위해서는 투자가 요구된다. 즉, 학교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취업하여 벌 수 있는 임금만큼의 기회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학교를 졸업한 후에 투자된 비용보다 더 많은 수익을 얻게 된다면 교육에 대한 투자는 증가하게 된다. 자녀의 미래성취를 위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인적자본 투자형태로는 수업료와 같은 직접적인 비용을 부담하는 학교교육과, 학용품구입 등과 같은 필수적인 학교 활동 보조 자료의 확보와 혹은 부족한 수업을 보충하기 위한 과외 교육비인 부가적인 추가교육이 있다. 이때 전자를 공교육비라 하고 후자를 사교육비라고 한다(공은배·천세영, 1989; Bryant, 1990).

통계청(2007)은 사교육비의 개념을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의 정규 교육과정 이외에 사적인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학교 밖에서 받는 보충교육을 위해 개인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정의하였으며, 사교육비 범위에 주요 과목별로 학원비, 개인 및 그룹과외비, 학습지, 인터넷 및 통신강의 과외비를 포함했다.

교육인적자원부(2003)는 사교육비를 ① 학생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지출하는 경비(교재, 부교재비, 학용품비, 학교지정 의류 비, 급식비, 교통비, 하숙비 등) ② 공교육비가 부족하여 관행상 학생이 지출하는 경비(수업 준비물 비, 각종 단체 활동비 등) ③ 방과 후 특기, 적성 교육활동에 지출하는 경비(특기, 적성교육 활동비 등) ④.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지출되거나 다소간 공교육비와 중복투자의 성격을 갖는 경비(입시학원비, 개인과외비, 특기, 재능학원비 등) ⑤ 기타잡비(학급비, 졸업비, 성금, 찬조금, 촌지 등) 이 포함된다고 정의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인적자원부(2003)의 정의에 따라 사교육비를 공교육비와는 달리 공공회계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학교교육이외에 지출하는 학원비, 과외비, 부교재비, 단체 활동비, 급식비, 기타 등을 포함하고자 한다.

OECD 통계연보 결과를 볼 때, 2004년 현재 우리나라의 교육비 지출은 GDP의 7.2%로 OECD국가 평균인 5.7%를 크게 웃돌고 있으며, 특히 사교육비 지출은 GDP의 2.8%로 OECD국가 평균(0.7%)의 4배에 달하며, 우리나라 사교육비 부담이 OECD회원국 중 최고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개인저축률이 급격히 떨어지고 가계소비 위축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연합뉴스, 2007년 10월 29일). 이런 결과를 볼 때, 특히 우리나라는 사교육비의 높은 증가율이 사회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 사교육비실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초등학생·중학생·고등학생이 지출하는 사교육비 전체 규모는 20조 400억으로 추정되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의 10분의 1수준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체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8만8000원, 사교육 참여율은 77%인 것으로 나타났다(통계청, 2007). 유치원 아동부터 고

등학생까지의 자녀를 둔 전국을 대상으로 한 현대경제연구원(2007)는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약 38만 1천원, 평균 81.1%의 참여율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재수생 이하의 자녀를 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한국 노동연구원의 제8차 한국가구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2005)에 의하면 전체 가구 중 대학생이 아닌 학생 자녀(재수생 포함)가 있는 가구당 평균 사교육비는 40만5000원인 것으로 조사됐고 자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용은 2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 1인당 월평균 지출금액은 초등학생 21만 4천원, 중학생 25만 8천원, 고등학생 35만 8천원, 재수생이 51만 8천원으로 나타났다. 이렇듯, 자녀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용이 과거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증가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역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통계청, 2007) 학부모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의식조사를 실시한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2003)는 사교육비가 가계지출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 10~30%를 차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53.9%로 가장 많았고 3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응답도 30%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제 더 이상 사교육비는 선택적 소비지출이 아니며, 그 지출 규모나 비중 면에서 볼 때 가계경제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출 항목인 것이다.

대부분 선행연구결과, 사교육비에 대한 부담정도가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현대경제연구원(2007)은 매우 부담이 된다는 답변이 36.4%, 부담이 된다는 답변이 40.4%로 77%가량이 사교육비에 부담스럽다는 응답은 8.4%에 불과했다. 이승신(2002)은 월 평균 사교육지출액이 평균 14만9천원이며, 응답자의 절반정도가 사교육비에 대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통계청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유치원, 초, 중, 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사교육비 부담정도를 살펴본 이성림(2005)의 연구에 따르면, 사교육비 부담 분위별로 사교육비 지출 부담에 있어 큰 차이가 나타났다. 즉, 1분위에는 사교육비 비중이 1%에도 못 미치지만 5분위에서는 비중이 18%, 월평균 지출이 약 37만원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가계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 부담의 차이가 매우 크며 자녀의 학교 급이 높아질수록,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사교육비 부담 정도가 증가하며 사교육부담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지출배분의 조정과 더불어 생활 수준의 저하를 경험한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고정옥(2004)은 40%이상의 가계가 자녀의 사교육비가 상승하더라도 계속 지출하고 사교육비가 가계의 부담이 되면 부업을 해서라도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최상근 외(2003)는 초등학교 학생의 80% 이상, 중등학교 학생의 75% 정도가, 그리고 고등학교 학생들의 거의 절반 이상이 과외를 경험한 적이 있다고 조사했고,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을 대상으로 한 박미희와 여정성(2000)의 연구에서도 91.6%의 가계가 어떤 형태든 자녀에게 사교육을 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대부분의 가구와 개인들이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여정성, 1996).

2) 사교육비 지출 관련 변인 고찰

① 자녀의 학교급과 자녀수

자녀의 학교급과 자녀수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박미희와 여정성(2000)의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가 중학생인 집단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으로 고등학생 집단, 초등학생 이하 집단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 자녀보다는 두자녀의 가계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ecker와 Lewis(1973)은 자녀의 수와 질은 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증명했고, 양세정과 이윤금(1997)은 1995년 도시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수와 자녀 성비를 중심으로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을 파악한 결과, 자녀수가 1명일 때 교육비지출은 105,413인 반면 자녀수가 4명일 때는 278,891원으로 자녀수가 증가함에 따라 총교육비부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은우(2004)는 자녀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가계의 교육비부담은 증가하지만, 일인당교육비는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을 비교한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는 첫 자녀가 취학 전이거나 초등학교인 경우 사교육비의 지출이 공교육비의 지출보다 현저히 많았고, 첫 자녀가 중·고등학교인 경우에는 공교육비와 사교육비의 지출이 모두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자녀의 학년이 높을수록 자녀의 수가 많을수록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많았다(이기영 외, 1995; 김인숙·여정성, 1996).

그러나 최근 통계청(2007)발표에 따르면 저학년일수록 사교육비 지출이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초등학교 학생은 90%, 중학교 학생은 75%, 고등학교 학생은 55%정도가 사교육을 받고 있으며 초등학생이 월 평균 23만원을 지불하는 반면 고등학생은 월 평균 20만원을 사교육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세 이상 남녀를 대상으로 한국 소비자원(2007)이 발표한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분석결과에서도 초등학생(80.7%)이 중고생(68.7%)보다 사교육을 받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② 교육수준과 직업

교육수준에 따라 사교육 참여율에 영향을 미치는 연구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는데 부모의 학력수준이 중졸일 경우 사교육비 참여율은 50%, 대졸

이상일 경우 90%에 가까워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 및 사교육 참여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통계청, 2007).

고등학생, 대학생을 대상으로 중앙고용정보원에서 실시한 고용동향분석(2005)은 청년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사회계층변인에 따른 사교육비 지출연구를 살펴보았는데 고졸이하 가구주의 자녀 사교육비 지출비용이 월 50만원 미만에 집중되어있는 반면에 대졸과 석사이상의 경우에는 월 50만원 이상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0만 원 이상의 사교육비 지출비용을 보면 가구주 학력이 고졸이하보다 석사 이상인 경우 4배 이상 사교육비 지출격차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근 외(2003)는 2003년 초, 중, 고등학생 1인당 사교육비 지출은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4년제 이상일 경우 350만원이 넘는데 반해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중학교 이하일 경우에는 절반수준인 175만원인 것을 알 수 있고 양세정과 이윤금(1997)의 연구에서도 가구주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교육비 지출이 전반적으로 많은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가구주 교육수준이 대졸이상인 가계의 1인당 교육비가 초등 졸 이하 가계의 교육비보다 3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계층별로 사교육비지출에 대한 관련요인을 살펴본 이승신(2003)은 저소득층가계와 고소득층가계의 경우 주부의 학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많았다. 이처럼 아버지의 교육수준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교육수준도 높을수록 사교육비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김인숙·여정성, 1996; 박미희·여정성, 2000).

직업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한 양세정과 이윤금(1997)은 가구주의 직업의 경우 관리·전문직이거나 기술직인 경우에 노무직가계에 비해 교육비지출규모가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취업하지 않은 가계가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하였고 아버지

의 직업에 따라서는 사무·전문직 종사자, 자영업자, 서비스·기능직 종사자 순으로 사교육비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희·여정성, 2000).

③ 가계소득과 자산상태

가계소득은 사교육비지출변동에 있어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는데,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 가계의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출과 참여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이기영 외, 1995; 김인숙·여정성, 1996; 문숙재·김순미·김성희, 1996; 박미희·여정성, 2000; 이승신, 2002)

소득계층별로 사교육비 지출격차를 접근한 연구들도 많이 있는데 통계청(2007)에 따르면 월평균 소득 700만 원 이상 계층은 100만원 미만 계층보다 8.8%를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신(2003)의 연구에서는 저소득층의 자녀 사교육비 지출이 중간 소득층과 고소득층에 비해 매우 낮았고 사교육비를 사치재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고소득층 가계의 사교육지출은 저소득층가계의 약 5배 이상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계소득이 높은 집단의 경우에 과외, 학원, 학습지에 골고루 지출하거나 과외에 중점적으로 지출하는 반면에 저소득 집단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단위 비용이 낮은 보충학습이나 학습지에 대부분의 사교육비를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미희·여정성, 2000).

양세정과 이윤금(1997)의 연구에서는 고소득층의 교육비지출액이 저소득가계의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고 가계소득이 많아짐에 따라 1인당 교육비 역시 상승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대부분의 연구에서 가계 소득수준은 사교육비지출 수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소유여부에 따라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양세정과 이윤금(1997)의 연구에서는 자가 주택에 거주하는 가계는 전세나 월세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가계보다 월평균교육비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대체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가계보다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가계가 사교육비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문숙재 · 김순미 · 김성희, 1996; 박미희 · 여정성, 2000)

4. 노후준비와 사교육비 지출의 관계

노동연구원의 제8차 한국가가와 개인의 경제활동 보고서(2005)에 의하면 도시근로자가구들이 생활비에서 식비와 주거비 등을 줄여서 월평균 생활비의 4분의 1가량을 자녀에 대한 사교육비 지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이기영 외(1995)도 중고교생 자녀를 가진 가정의 생활비 중 가장 큰 부담이 되는 비목이 교육비라고 설명하면서 전체집단의 평균지출액이 54만8천원으로 이는 생활비의 26.8%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를 하고 있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를 구분하여 경제적 특성에 있어서 어떠한 차이가 보이는지를 살펴본 결과 주택 외 자산과 월 저축액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노후준비에 있어 저축이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제주도 시내 초·중·고등학생 자녀가 있는 가계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정옥(2004)은 사교육비로 과반수가 넘는 62.9%의 가계가 생활비를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우선적으로 줄이는 비목은 외식비, 교양오락비였다. 또한 부업이나 도우미 일을 한 경우 42%, 저축한 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한 경우는 28%였고, 김인숙와 여정성(1996)의 연구에서는 저축의 목적이 자녀의 교육비 마련이라는 응답도 23.2%였다.

손상희 외(2003)는 소득 감소했을 때 주로 어떤 항목의 지출을 줄이며 조정했는지 분석해본 결과 지출감소폭이 가장 큰 항목이 피복비였고 그다음은 식료품과 여가활동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른 항목에 비해 교육비, 주거비, 교통통신비, 경조사비, 보건의료비 등은 지출감소폭이 적은 항목인 것으로 분류되었고, 소득이 감소할 경우 가장 줄이기 힘든 항목으로 전체가구의 55%가 교육비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선행연구를 통해서 사교육비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매우 크며, 가계소비지출비목 중 경제적 부담이 가장 큰 항목임을 알 수 있다(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2003; 이성림, 2005; 통계청, 2007). 이는 자녀교육으로 인해 여타의 재무목표가 부정적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증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자녀학령기 가계는 자녀교육과 노후준비가 주요 재무과업인 시기이다. 또한 자녀교육비를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저축과 투자액을 줄이고, 이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가계가 상당히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사교육이 이루어지는 시기는 여러 가지 재무목표, 즉 주택마련, 노후준비 등이 얽혀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계획을 세우지 않는다면 대부분 경제적인 자원의 부족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성림(2005, 2006)은 가계가 사교육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어떠한 경제적 전략을 사용하는 파악하기 위해 사교육비를 소비지출 감소분과 저축 감소분으로 분해하여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대체로 사교육비는 현재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충당되고 있으며 특히 소득수준이 낮은 가계와 사교육 부담 수준이 높지 않은 대다수의 가계는 거의 전적으로 소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고소득층과 사교육 부담이 높은 가계는 소비지출을 줄일 뿐 아니라 저축을 감소시킴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사교육에 참여하는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한 현대경제연구원(2007)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가구의 76.8%가 사교육비가 부담스럽다고 답했으며, 57.2%는 만약 사교육비 지출이 없다면 그 금액을 노후준비 자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답하였다. 또한 40~70세의 부모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Todd와 DeVaney(1997)의 연구에서는 1/4정도가 자녀의 대학등록금을 지불하기 위해 은퇴 저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의 문제는 가계의 지출 부담이 증가하여 생활의 질이 저하되고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노후를 위한 저축을 하지 못하면 노후 경제적 대비가 불가능해진다고 볼 수 있다.

III. 연구방법

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자녀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자녀학령기 가계를 대상으로 이들의 노후준비 실태와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알아보고,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않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노후준비특성, 사교육비 지출특성을 비교하며, 나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실태와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파악한다.

- 1-1)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수행여부방법, 규모, 만족도, 수행하지 않는 이유 등에 대해 알아본다.
- 1-2) 자녀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규모, 만족도, 부담정도, 지불원천 등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알아본다.

[연구문제 2]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차이를 분석한다.

- 2-1) 자녀학령기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차이를 분석한다.
- 2-2) 자녀학령기가계의 노후준비특성 차이를 분석한다.
- 2-3) 자녀학령기가계의 사교육비 지출특성 차이를 분석한다.

[연구문제 3]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다.

2.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서울 및 경기도, 인천에 거주하는 첫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계를 대상으로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첫 자녀가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으로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층화표집을 수행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사교육비를 지출하는데 영향력을 많이 미치는 배우자가 주로 기입하도록 고안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각 학년별로 첫 자녀가 초·중·고등학생을 둔 부모를 대상으로 2008년 2월4일부터 2월 9일까지 총 50부 예비조사를 실시하였다. 사전검사 결과를 분석하여 적절치 못한 문장이나 표현, 애매한 내용 등 설문지의 일부 문항에 대해 수정·보완 과정을 거쳐 문항을 재구성 하였다. 본 조사는 2008년 2월 11일부터 3월 12일까지 설문조사가 진행되었으며, 총 350부를 배포하였으나 미회수, 부실 기재되거나 분석에 용이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총 304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3. 측정도구의 구성

본 연구에 사용된 설문지는 자녀학령기 가계의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과 노후준비특성 및 사교육비 지출특성을 조사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조사대상자의 사회·경제적 특성은 연령, 교육수준, 직업, 학령기 자녀수, 첫 자녀 학년별, 거주 지역, 월평균 가계 소득수준, 주택소유여부,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등을 조사하였다. 또한 가계의 주요재무문제에 대해 1순위

에서 3순위까지 기입하도록 하였다. 연령은 가구주와 배우자를 따로 기입하도록 하였고 교육수준은 중학교 졸업, 고등학교 졸업, 2년제 대학교 졸업, 4년제 대학교 졸업, 대학원 이상으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직업도 가구주와 배우자를 따로 기입할 수 있도록 하였고 무직·주부, 판매직·서비스직, 생산직, 사무직, 전문·기술직, 전문·관리직, 기타로 구분하여 질문하였다. 학령기 자녀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위해 첫 자녀가 고등학생 이하인 가구로 한정하였다. 거주 지역은 서울, 경기도, 인천으로 나누었고, 또한 주택소유여부는 자가, 전세, 월세, 기타로 구분하여 조사하였다. 현재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와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기대를 각각 조사하기 위해 1~9점으로 평가하도록 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경제수준이 높은 것이다.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자금특성은 노후준비자금 보유여부, 퇴직제도 여부, 효과적인 노후자금마련방법 등을 파악하기 위한 문항과 은퇴 후 예상 생활비는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몇 %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질문했다.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근거로 상($M+SD/2$ 초과),중($M+SD/2\sim M-SD/2$),하($M-SD/2$)로 분류하였다.

현재 노후자금 보유집단에 대해서는 노후자금마련방법 및 지출 금액, 그리고 방법 및 금액에 대한 만족도와 충분성을 조사하였다. 노후준비자금의 만족도는 ‘매우 만족하다(5점)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 노후준비자금의 충분성은 ‘매우 충분하다(5점)에서 매우 부족하다(1점)’로 구성된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

사교육비 지출특성은 학년별로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현황과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가계경제에 부담정도, 사교육 효과에 있어 만족도와 경제적인 여건이 허락된다면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이러한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부담정도는 ‘매우 부담된다

(5점)에서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1점)', 사교육 효과 만족도는 '매우 만족한다(5점)에서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1점)' 사교육 증액의향은 '매우 그렇다(5점)에서 전혀 그렇지 않다(1점)'로 구성된 5점 리커트(Likert)척도로 이루어졌다. 사교육비 지불 원천으로 생활비 감액·증액 여부와 저축과 투자액으로 충당여부, 부업과 새로운 직장여부로 사교육비를 충당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4. 분석방법

본 연구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된 자료는 각 분석 목적에 맞추어 SPSS Window(Version 14.0)프로그램을 이용하였고, 구체적인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우선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노후준비 실태,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 통계 분석(descriptive statistics)을 수행하여 빈도, 백분율, 평균값, 표준편차 등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한 적이 있는 가계여부에 따라 사회·경제적 특성 및 노후준비 특성과 사교육비 지출특성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카이제곱(χ^2)과 t-검증(t-test)을 수행하였고, 마지막으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을 실시하였다.

IV. 연구결과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대상자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가구주 연령, 가구주 교육수준, 학령기 자녀수, 첫 자녀 학급, 가구주 직업, 거주 지역, 월평균 가계소득, 주거유형,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수준, 주요재무문제에 대해 총 30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는 <표 2>에 제시된 바와 같다. 먼저, 조사대상자의 사회 인구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연령은 30세부터 55세까지 분포하며 30-39세가 17%, 40-49세가 67%, 50-55세는 13%로 주로 40대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가구주의 평균 연령은 43.9세이다. 교육수준은 고졸이하가 23%, 2년제를 포함한 대졸이상인 57%, 대학원졸 이상이 17%로 비교적 교육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학령기 자녀수는 2인이 49.5%로 가장 많았고 1인이 43.7%, 3인 이상이 6.8%이며 첫 자녀가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가 34.5%, 고등학교 학생인 경우가 32.9%, 중학교 학생인 경우가 28.9%로 비슷하게 분포됨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직업은 전문 관리·기술직이 42.4%, 사무직인 29.3%, 생산·판매직이 27.3%로 나타났는데 전문 관리·기술직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대상자의 교육수준과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거주지는 서울이 31.9% 경기도, 인천이 68.1%로 나타났다.

조사대상자들의 재정적 특성을 살펴보면 월평균가계소득은 300-500만원미만이 40.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보여주었고 평균 가계소득은 475만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시점인 2007년 4분기 도시근로자가구의 월평균소득(373만 1천원)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데, 이는 생산·판매직과 사무직에 비해 전문 관리·기술직이 조사대상자의 약50%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맞벌이가계이면 부부의 소득을 합산했기 때문에 소득수준

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다. 주택소유여부도 자가 77.6%, 전세·월세·기타가 22.3%로 대부분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본인이 처한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수준을 1-9점까지로 기입하도록 한 결과는 평균 4.89점으로 중간 값 정도였고, 또한 조사대상자의 인지하주요 재무문제로는 자녀교육비가 51%, 노후생활대비가 16.4%, 주택마련이 15.8%로 나타났는데 이는 40대 가계의 재무목표로 구분되는 자녀교육, 노후자금준비와 일치하며 이시기에 이루어져야 하는 재무목표가 재무문제로 인식이 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각 시기에 재무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본다.

<표 2>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304)

변수		구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사 회 인 구 학 적 특 성	가구주 연령(세)	30-39세	52	(17.1)
		40-49세	204	(67.1)
		50-55세	40	(13.2)
		평균	43.9	(4.8)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이하	69	(22.7)
		대졸이상(2년제 포함)	173	(56.9)
		대학원졸 이상	53	(17.4)
학령기 자녀수	1인	128	(43.7)	
	2인	145	(49.5)	
	3인 이상	20	(6.8)	
첫 자녀	초등 학생	105	(34.5)	
	중 학생	88	(28.9)	
	고등 학생	100	(32.9)	
가구주 직업	생산·판매직	83	(27.3)	
	사무직	89	(29.3)	
	전문 관리·기술직	129	(42.4)	
거주 지역	서울	97	(31.9)	
	경기도	145	(47.7)	
	인천	62	(20.4)	
재 정 적 특 성	월평균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34	(11.2)
		300-500만원 미만	124	(40.7)
		500-700만원 미만	90	(29.7)
		700이상	41	(13.5)
		평균(단위: 만 원)	475.3	(388.4)
	주택소유 여부	자가	236	(77.6)
전세, 월세, 기타		68	(22.3)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경제수준(1-9점)			4.89	(1.2)
주요재무문제 (1순위)	자녀교육비	155	(51.0)	
	노후생활대비	50	(16.4)	
	주택마련	48	(15.8)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2. 자녀 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와 사교육비 지출특성

1)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3>에 제시된 바와 같다. 조사대상자들 중 79.9%가 은퇴 후를 위해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20.1%가 노후준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삼성경제연구소(2007)의 조사에서 40대에 76.9%가 노후준비를 하고 있다는 결과와 비슷하다. 가구주의 퇴직금과 퇴직제도 여부를 살펴보면 66.1%가 퇴직금제도가 있으며 33.9%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퇴직금제도 유무는 노후준비자금의 규모와 방법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은퇴 후 생활에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기대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수준을 1-9점까지 평가한 결과 평균 5.07점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경제수준을 4.89점으로 평가한 것과 비교해 볼때 유의한 차이가 나지는 않았다. 은퇴 후 예상경제수준과 현재 경제수준 차이를 살펴보면 은퇴 후가 현재보다 더 나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31%였으며, 은퇴 후 경제수준이 현재보다 더 못할 것으로 보는 경우가 37.8%, 은퇴 후와 현재가 같을 것이라는 가계도 31%로 나타났다. 이는 20, 30대를 대상으로 한 차경욱 외(2008)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 아직 자녀가 없거나 어린자녀를 가지고 있는 20,30대는 은퇴 후의 생활이 더 풍요로울 것이라고 기대하는 비율이 높은 반면, 중년층에 해당하는 자녀학령기 가계는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에 혹은 은퇴설계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일찍 깨우치지 못했기 때문에 노후생활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고, 이에 따라 노후생활에 대한 기대수준도 낮을 수 있다고 사료된다.

은퇴 후 경제적으로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

가 현재 생활비의 몇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조사한 결과 평균 68.5%정도라고 응답했다. 또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근거로 상($M+SD/2$ 초과), 중($M+SD/2 \sim M-SD/2$), 하($M-SD/2$)로 분류하여 빈도를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자의 55%가 중간 집단(현재 생활비의 56%-81%), 14%가 상위집단(현재 생활비의 81%초과), 29%가 하위집단에 속한 것을 볼 수 있었다. 하나은행과 한국궐럼이 실시한 설문조사(2007)에서는 은퇴 후 생활비로 현재 소득의 57%가량이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고, 대한상공회의소(2006)의 조사에서는 응답자의 58%정도가 현재 생활비의 50%-90%정도 필요할 것이라고 답하였고, 응답자의 11%가 현재 생활비의 90%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답변바 있다.

노후자금마련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에 대해 조사를 한 결과, 부동산 투자가 20.1%로 가장 효과적인 은퇴설계방법으로 지목되었고 그 다음으로 퇴직금, 퇴직연금이 19.4%, 연금보험이 18.1%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공회의소(2006)의 결과에 따르면 중장년층에서 부동산에 대한 선호가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부동산을 거주 목적 아닌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현재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있는 집단($n=243$)의 노후준비관련 특성을 살펴보면, 노후준비를 위해 불입하고 있는 금액은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월 평균 50만 3천 원 정도로 나타났으며, 약 37%는 30만 원 이하, 약 23%는 30-60만 원 이하, 약 17%는 60만원 초과하여 지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자들이 현재 노후준비를 위해 불입하는 금액이 은퇴 준비를 위해 충분한 수준인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과반수(52.3%)의 조사대상자는 '매우 부족하다'와 '부족하다'고 답하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31.9%이고 '충분하다'와 '매우 충분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5.6%로 나타났다. 평균 노후생활을 유지하기 위해서 약 3억을 필요자금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볼 때(최현자, 2007), 자녀학령기 가계에서 40%이상의 응답자들이 30만 원 이하의 노후자금을 불입하고 있다는 결과는 과반 수 이상이 노후자금에 대해 불충분 하다고 답한 결과를 설명해준다.

은퇴설계 방법에 대한 만족도 측면에서는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와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한 조사대상자가 23.9%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44.1%였다. 이는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가 규모가 방법 측면 모두에서 부족한 수준임을 보여주며,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은퇴설계가 필요함을 말해준다.

주요 은퇴설계 방법으로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이 약 70%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으로 나타났고 증권투자(주식, 채권, 간접투자)가 약 36%, 개인연금·연금저축이 약 35%, 정기 예·적금이 약 33%, 부동산이 약 20%로 조사되었다. 이는 앞서 가장 효율적인 노후자금 마련방법을 질문했을 때의 응답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즉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은 부동산, 퇴직금, 연금보험 순이었는데, 실제로는 여타의 방법보다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에 의존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대한상공회의소(2006)의 조사에서 국민연금 및 퇴직연금이 노후대책 수단으로 충분한지를 묻는 질문에 대해 ‘부족하다’와 ‘상당히 부족하다’가 약 90%로 나타난 결과를 고려할 때, 70%의 응답자들이 국민연금과 퇴직금에 큰 기대를 거는 것은 다소 우려되는 부분이다. 향후 국민연금의 수령액이 낮아질 것에 대비하여 보다 적극적인 노후자금마련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지 않는 가계(n=61)가 노후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를 살펴본 결과, 자녀양육비·교육비 때문에 33.9%, 생활비가 부족해서 32.2%, 대출상환 때문에 15.3%,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2%, 주택마련 때문에 6.8%, 노후자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1.7%로 나타났다. 이는 하나은행과

한국갤럽(2007)이 공동으로 조사한 결과에서 은퇴준비를 하지 못하는 이유로 경제력여유가 없기 때문이고 경제력 여력이 없는 가장 큰 이유로 61.9%가 “자녀교육비 부담” 때문이라고 대답한 결과와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과도한 자녀교육비 지출이 은퇴 후 노후생활에 재정적 어려움을 가져올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인 것이다.

<표 3> 자녀 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특성(n=304)

변수	구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노후준비자금 보유여부	있다.	243	(79.9)	
	없다.	61	(20.1)	
가구주 퇴직금/퇴직제도 유무	있다.	201	(66.1)	
	없다.	103	(33.9)	
은퇴 후 경제수준에 대한 주관적 인지 (1-9점)		5.07	(1.5)	
은퇴 후 기대경제수준과 현재 경제수준 차이	은퇴 후 > 현재	95	(31.3)	
	은퇴 후 = 현재	94	(30.9)	
	은퇴 후 < 현재	115	(37.8)	
은퇴 후 예상 생활비 ¹⁾ (%)	상 (81%초과)	43	(14.1)	
	중 (56-81%)	167	(54.9)	
	하 (56%미만)	88	(28.9)	
	평균(%)	68.5	(25.4)	
효과적인 노후자금마련방법 ²⁾ (1순위)	부동산 투자	61	(20.1)	
	퇴직금, 퇴직연금	59	(19.4)	
	연금보험	55	(18.1)	
노후준비 자금 보유 (n=243)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	30만 원이하	113	(37.2)
		30만원초과-60만원이하	69	(22.7)
		60만원 초과	52	(17.1)
		평균 (단위:만 원)	50.3	(41.1)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 충분성	불충분	127	(52.3)
		보통	97	(31.9)
		충분	17	(5.6)
		평균 ³⁾	2.47	(0.8)
	노후자금마련 방법 만족도	불만족	58	(23.9)
		보통	134	(44.1)
		만족	51	(16.8)
		평균 ³⁾	2.93	(0.8)
주요 노후자금 마련방법 (중복응답)	정기예금/적금	100	(32.9)	
	증권투자(주식,채권,간접투자)	110	(36.2)	
	부동산	61	(20.1)	
	국민연금/퇴직금	216	(71.1)	
	개인연금/연금저축	199	(35.2)	
노후준비 자금 미보유 (n=61)	노후준비 못하는 이유	주택마련	4	(6.8)
		자녀양육비/교육비	20	(33.9)
		대출상환	9	(15.3)
		생활비부족	19	(32.2)
		시기적으로 이룸	6	(10.2)
		노후준비를 할 필요가 없어서	1	(1.7)

1) 은퇴 후 예상 생활비는 [M±SD/2]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분류함.

2) 효과적인 노후자금마련방법은 빈도가 높은 순으로 세 가지만 제시함.

³⁾ 5점 환산평균 점수임. 1점 매우 불충분(불만족), 5점 매우 충분(만족)

2) 자녀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자녀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조사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첫 자녀 1인당 월 평균 교육비 지출은 약 44만원으로 나타났다으며 학급별로 살펴보면 첫 자녀 초등학생 가계의 1인당 월평균 교육비 지출은 35만 2천원, 중학생 가계는 47만 8천원, 고등학생 가계는 61만 1천원으로 조사되었다. 이 때 자녀의 학교 급은 첫째 자녀의 학교 급이다.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교육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사교육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부담을 어느 정도 느끼는지에 대한 부담여부와 경제적 여건이 된다면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부담정도에서는 ‘매우 부담된다’와 ‘부담된다’고 답한 조사대상자가 41.6%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조사대상자는 41.6%였다. ‘부담되지 않는다’와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5.3%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사교육비 부담인식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회통계결과에서도 1996년에는 66.7%, 2000년에는 72.5%, 2004년에는 77.2%로 사교육비 부담인식이 점점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중·고등학교 자녀를 둔 40대 및 50대에서 교육에 대한 부담률이 높게 나타났다(통계청, 1996, 2000, 2004). 또한 월 평균 가계소득에서 사교육비 지출비중을 보면 약 17%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사교육비 증액의향은 과반수(60.9%)이상의 조사대상자가 ‘매우 그렇다’와 ‘그렇다’고 답하였고, 보통이라고 답한 응답자가 18.4%였고 ‘그렇지 않다’와 ‘전혀 그렇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는 16.1%로 나타났다.

사교육 지출방법을 살펴보면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서 생활비를 줄인 적인 있는 가계가 약 72%로 나타났고 생활비를 줄인 적인 없는 가계는 약 27%로 나타났다. 또한 사교육 지출을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줄인 적이 있는 가계도

약 79%로 나타났고 저축이나 투자를 줄인 적인 없는 가계는 약 20%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마련을 위해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부업을 한 가계도 약 37%로 나타났다.

<표 4> 자녀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특성

(n=304)

변수		구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첫 자녀 초등학생 가계	35.2	(18.8)
		첫 자녀 중학생 가계	47.8	(20.5)
		첫 자녀 고등학생 가계	61.1	(28.6)
		평균	43.8	(23.4)
사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부담됨	201	(41.6)
		보통	75	(41.6)
		부담 안 됨	16	(5.3)
		평균 ¹⁾	3.8	(0.8)
사교육비 증액 의향		의향 없음	49	(16.1)
		보통	56	(18.4)
		의향 있음	185	(60.9)
		평균 ¹⁾	3.56	(0.9)
사교육 지불 원천	생활비 감액	있다.	220	(72.4)
		없다.	84	(27.6)
	저축, 투자액 으로 충당	있다.	241	(79.3)
		없다.	63	(20.7)
부업, 새로운 직장	있다.	114	(37.5)	
	없다.	180	(59.2)	
가계소득대비 총사교육비지중(%)		평균(%)	17	(11.1)

¹⁾ 5점 환산평균 점수임. 1점 전혀 부담되지 않음(전혀 의향 없음), 5점 매우 부담됨(매우 의향있음)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생활비를 줄인 가계(n=220)의 경우, 주로 어떤 소비항목의 지출을 줄이며 조정했는지를 1순위부터 3순위까지 기입하도록 한 결과는, <표 5>에 제시하였다.

1순위에서 가장 많이 사교육비 지출을 위해 줄인 비목으로 교양오락비가 19.1%로 나타났고 그다음으로 식료품비(13.2%), 피복·신발비(16.1%)인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것은 사교육비 때문에 희생하고 있는 지출항목으로 래저/문화생활이 25.4%를 차지하고 있는 현대경제연구소(2007)의 연구결과와 다소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만약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는다면 늘이고 싶은 소비항목으로 전체가구의 32.9%로 교양오락비라고 응답하였으며 그다음으로 식료품비(13.2%), 가구집기·가사용품비(7.2%)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을 살펴보면 생활비를 늘리지 않고 저축을 하겠다는 응답도 보였다.

<표 5> 자녀 사교육비 충당을 위해 감액한 생활비 항목

변수		구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생활비 감액 (n=220)	줄였던 항목 (1순위)	교양오락비	58	(19.1)	
		식료품비	54	(17.8)	
		피복, 신발비	49	(16.1)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31	(10.2)	
		기타소비지출	11	(3.6)	
		교통, 통신비	8	(2.6)	
		주거, 광열, 수도비	5	(1.6)	
		보건의료비/기타	5	(1.6)	
		늘이고 싶은 항목(1순위)	교양오락비	100	(32.9)
			식료품비	40	(13.2)
가구집기, 가사용품비	22		(7.2)		
보건의료비	19		(6.3)		
기타	13		(4.3)		
피복,신발비	12		(3.9)		
주거,광열비	8		(2.6)		
기타소비지출	4		(1.3)		
교통,통신비	2	(0.7)			

한편, 저축과 투자 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한 241가계를 대상으로 “만약 사교육비 지출이 없다면 해당 저축과 투자액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자금인지”에 대해 질문한 결과는 <표 6>에 제시된 바와 같다.

노후준비자금이 58.3%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고, 그다음으로 여가활동(24.9%), 내 집 마련(8.8%), 생활비(7.2%), 사업자금(3.6%)로 파악되었다. 노후준비와 여가활동자금이 80%를 차지하고 있는 이러한 결과는 사교육비로 인한 부담으로 가계복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생활의 질에 대한 만족도는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표 6> 자녀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감액한 저축/투자 항목

변수		구분	빈도(%) 또는 평균(표준편차)	
저축/투자액 으로 지불 (n=241)	자금의 ¹⁾ 원래용도 (중복응답)	노후준비	211	(58.3)
		여가활동	90	(24.9)
		내 집 마련	32	(8.8)
		생활비	26	(7.2)
		사업자금	13	(3.6)

¹⁾ 만약 사교육비 지출이 없다면 해당 저축/투자액이 어떤 목적으로 쓰일 자금인지에 대해 질문함.

3.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의 비교

본 절에서는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n=211)와 그렇지 않은 가계(n=93)간에 사회·경제적 특성, 노후준비 특성과 사교육비 지출특성에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를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1) 일반적 특성비교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한 적이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일반적 특성은 가구주 교육수준, 학령기 자녀수, 월평균 가계소득이었다.

가구주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대학원 이상인 집단에 비해, 가구주가 고졸 이하이거나 대졸일 때, 노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령기 자녀수를 살펴보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 지불을 하는 집단의 평균 학령기 자녀수(1.7명)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 지불을 하지 않는 집단의 평균 학령기 자녀수(1.5명)보다 유의하게 많았으며, 학령기 자녀수가 1인 보다는 2인일 때 2인보다는 3인 이상일 때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녀수가 많을수록 사교육비에 대한 투자가 증가한다고 밝힌 양정선과 김순미(2003)의 연구결과를 지지한다.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 지불하는 집단의 월평균 가계소득은 424.3만원으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 지불하지 않는 집단 539.9만 원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월 평균 가계소득이 700만원 미만인 집단인 경우에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가계의 비율이 그렇지 않은 가계 보다 높은데 반해, 월평균 가계소득이 700만 원 이상 고소득층

은 사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하는 비율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는 사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다른 저축액을 사용하지 않아도 될 만큼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그 기준점이 월평균소득 700만원이라는 것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고 생각된다. 즉 도시근로자 가구의 월평균소득(약 373만 원)을 상회하는 소득을 가진 가계의 70% 이상이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한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결과이다.

<표 7>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
- 일반적 특성비교-

(n=304)

변수	구분	지불하는 가계 (n=211)	하지 않은 가계 (n=93)	t/ χ^2	
사 회 인 구 학 적 특 성	가구주 연령 (세)	43.98	43.77	0.34	
	가구주 교육수준	고졸이하 대졸이상(2년제포함) 대학원졸 이상	52(75.4%) 124(71.7%) 28(52.8%)	17(24.6%) 49(28.3%) 25(47.2%)	8.38*
	학령기 자녀수	1인	81(63.3%)	47(36.7%)	7.82*
		2인 3인 이상	111(76.6%) 17(85%)	34(23.4%) 3(15.0%)	
		평균(인)	1.69	1.48	2.80**
	첫 자녀	초등 학생	69(65.7%)	36(34.3%)	4.67
		중학생	61(69.3%)	27(30.7%)	
고등 학생		79(79.0%)	21(21.0%)		
가구주 직업	생산·판매직 사무직 전문 관리·기술직	63(75.9%) 64(71.9%) 81(62.8%)	20(24.1%) 25(28.1%) 48(37.2%)	5.89	
거주지역	서울	63(63.3%)	34(35.1%)	1.64	
	경기도	102(63.3%)	43(29.7%)		
	인천	46(63.3%)	16(25.8%)		
재 정 적 특 성	월평균 가계소득	300만원 미만	27(79.4%)	7(20.6%)	26.4***
		300-500만원 미만	95(76.6%)	29(23.4%)	
		500-700만원 미만	66(73.3%)	24(26.7%)	
		700이상	15(36.6%)	26(63.4%)	
	평균(단위: 만 원)	424.38	539.88	-4.40***	
주택소유 여부	자가	63(64.9%)	34(35.1%)	1.33	
	전세, 월세, 기타	148(71.5%)	59(28.5%)		
주관적으로 (1-9점)	인지하는 경제수준	4.87	4.95	-0.52	

1) 결측치(missing value)로 인하여 각 cell의 빈도 합이 다를 수 있음.

2) 노후준비 특성 비교

본 연구에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거나 지불한 적이 있는지의 여부를 질문하였기 때문에, 노후준비자금 줄여서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는 가계(n=211) 중에는 현재 시점에서 보유하고 있는 노후준비자금이 전혀 없는 가계(n=41)도 있다.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노후준비특성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는 <표 8>에 제시된 바와 같다. 가구주 퇴직금·퇴직제도 여부, 은퇴 후 예상 생활비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가구주 퇴직금 여부를 살펴보면, 퇴직금이 있는 가계보다 없는 가계에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퇴직금이 없는 가계의 경우, 노후준비자금을 더 많이 모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후준비자금을 줄여서 자녀의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것은 노후생활에 있어 심각한 재정적 불안을 초래할 수 있음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은퇴 후 예상생활비를 현재 생활비의 81% 이상으로 예상하고 있는 집단의 경우에는 노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경향이 낮았고, 은퇴 후 예상 생활비를 81% 미만이라고 예상하는 두 집단에서는 노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경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즉 은퇴 후에 보다 많은 생활비가 들 것이라고 생각하는 가계, 혹은 은퇴 후에 보다 높은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싶은 가계는 노후준비자금을 자녀 교육비로 대체하는 경향이 낮고, 은퇴 후 생활수준을 낮게 잡고 있는 가계는 그만큼 노후준비자금을 덜 모아도 되기 때문에 해당 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것이라고 보인다. 그러나 반대로, 자녀교육비를 충당하느라고 노후준비자금을 줄이고 있기 때문에 은퇴 후 예상생활수준을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하는 것일 수도 있다.

현재 노후자금을 보유하고 관리하는 집단(n=243)을 대상으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한 결과, 노후준비자금 지출액과 노후준비자금 만족도와 충분성에 있어 모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을 살펴보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은 평균 46만원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집단(62만원)보다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자금 규모가 60만원 초과인 집단 보다는 30-60만 원인 집단이, 30-60만 원인 집단 보다는 30만 원을 이하인 집단이 노후자금을 줄여서 사교육비를 충당하는 비율이 높았다. 노후자금을 줄여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의 비율이 높은 집단일수록 그만큼 노후준비자금으로 할당할 수 있는 금액은 낮아지는 것이다.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지를 1점(매우 불충분)에서 5점(매우 충분)까지 점수분포로 측정한 결과,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은 평균 2.41점으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집단(2.62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또한 노후준비자금 마련방법에 대한 만족도를 5점 척도로 질문한 결과,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은 평균 2.86점으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는 집단(3.13점)보다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교육비를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하는 가계들이 노후준비자금의 규모와 마련방법에 모두에 대해 만족도가 낮다는 것 사교육비로 부담으로 인해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은퇴설계를 해 온 은퇴자가 노후생활에 더 만족한다는 선행연구(Elder & Rudolph, 1999)에 근거할 때, 노후준비의 불충분은 은퇴 후 생활의 불만족과 이어질 수 있다.

<표 8>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

- 노후준비 특성 비교 -

(n=304)

변수	구분	지불하는 가계 (n=211)	하지 않는 가계 (n=93)	t/ χ^2	
현재 노후자금 보유여부	있다. 없다.	170(70.0%) 41(67.2%)	73(30.0%) 20(32.8%)	0.17	
가구주 퇴직금/퇴직제도 여부	있다. 없다.	130(64.7%) 81(78.6%)	71(35.3%) 22(21.4%)	6.25*	
은퇴 후 기대경제수준과 현재 경제수준차이	은퇴 후 > 현재 은퇴 후 = 현재 은퇴 후 < 현재	64(67.4%) 65(69.1%) 82(71.3%)	31(32.6%) 29(30.9%) 33(28.7%)	0.38	
은퇴 후 예상 생활비 ¹⁾ (%)	상(81%초과)	23(53.5%)	20(46.5%)	6.04*	
	중(56이상-81%)	118(70.7%)	49(29.3%)		
	하(56%미만)	65(73.9%)	23(26.1%)		
	평균(%)	66.7	72.7	-1.63	
현재 노후 준비 자금 보유 ²⁾ (n=243)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	30만 원이하	88(77.9%)	25(22.1%)	7.13*
		30만원초과-60만원이하	48(69.6%)	21(30.4%)	
		60만원 초과	30(57.7%)	22(42.3%)	
	평균(단위: 만 원)	45.5	61.9	-2.47*	
노후준비 자금 보유 ²⁾ (n=243)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 충분성	불충분	96(74.4%)	33(25.6%)	3.74
		보통	66(68.0%)	31(32.0%)	
		충분	9(52.9%)	8(47.1%)	
평균 ³⁾	2.41	2.62	-2.04*		
노후자금 마련방법 만족도	노후자금 보통	불만족	45(75.0%)	15(25.0%)	5.55
		보통	96(72.7%)	36(27.3%)	
		만족	29(56.9%)	22(43.1%)	
	평균 ³⁾	2.86	3.13	-2.54*	

1) 은퇴 후 예상 생활비는 [M±SD/2]를 기준으로 상, 중, 하 세 집단으로 분류함.

2)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n=170) + 지불하지 않는 집단(n=73)

3) 5점 환산평균 점수임

3) 사교육비 지출 특성 비교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 간에 사교육비 지출특성이 어떤 차이를 나타내는지 비교한 결과는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다. 사교육비 지출특성은 첫 자녀가 중학생, 고등학생 가계의 자녀 1인당 사교육비 지출액을 제외한 모든 변수에서 집단 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42만 9천원)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집단의 사교육비(35만 6천원)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가계의 경우,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의 자녀 1인당 사교육비가 그렇지 않은 가계의 사교육비 보다 유의하게 높았다. 초등학교 자녀 가계는 아직 은퇴설계에 대한 긴급함이 부족하기 때문에 노후준비자금 저축액을 줄여 사교육비로 지불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녀가 중,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노후자금을 줄여 교육비를 충당하는 행위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정도를 1점(전혀 부담되지 않음)에서 5점(매우 부담됨)까지 점수분포로 측정된 결과,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은 평균 4점으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집단(3.4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노후준비자금을 사용하는 집단의 경우,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 지출액이 유의하게 높고, 그로 인해 부담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이다. 반대로, 사교육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노후준비자금을 줄여서 그것을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는 높은 부담을 느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사

교육비를 더 증액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적 여건이 허락할 경우, 사교육비를 증액할 의향이 있는지를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한 결과,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은 평균 3.7점으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고 있지 않은 집단(3.3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나타냈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 노후준비자금으로 그것을 충당하고,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사교육비를 증액하고 싶어 하는 것은 자녀교육에 대한 우리나라 부모들의 욕구와 열정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욕구와 열정이 지속될수록 노후자금이 사교육비로 대체될 가능성이 높아지며, 노후생활은 부정적 영향을 받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사교육 지불원천으로 생활비 감액여부와 새로운 직장여부 보유에 대해 살펴보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에서 사교육 지불을 위해 생활비를 줄인 비율이 월등하게 높고, 부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장을 얻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녀학령기 가계가 사교육비 지불 원천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후준비자금을 줄이는 가계가 생활비로 줄이고, 부업을 가질 가능성도 높다는 것은 자녀교육비가 가계의 현재 및 미래의 경제생활 전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표 9>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가계

- 사교육비 지출 특성 비교 -

(n=304)

변수		구분	지불하는 가계. (n=211)	하지않는가계 (n=93)	t/ χ^2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 원)		첫 자녀 초등학생 가계	38.2	29.4	2.26*
		첫 자녀 중학생 가계	48.4	46.7	0.35
		첫 자녀 고등학생 가계	58.3	71.8	-1.42
		평균	42.9	35.6	2.32*
사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부담됨	162(80.6%)	39(19.4%)	29.77***
		보통	42(56.0%)	33(44.0%)	
		부담 안 됨	5(31.3%)	11(68.8%)	
	평균 ¹⁾	3.99	3.37	5.76***	
사교육비 증액 의향		의향 없음	28(57.1%)	21(42.9%)	11.52**
		보통	35(62.5%)	21(37.5%)	
		의향 있음	145(78.4%)	40(21.6%)	
		평균 ¹⁾	3.67	3.27	
사교육 지불 원천	생활비감액	있다. 없다.	184(83.6%) 27(32.1%)	36(16.4%) 57(67.9%)	75.91***
	부업, 새로운직장	있다. 없다.	99(86.8%) 111(61.7%)	15(13.2%) 69(38.3%)	21.68***
가계소득대비 총사교육비비중(%)		평균(%)	18.9	11.4	5.12***

¹⁾ 5점 환산평균 점수임.

4.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본 절에서는 자녀학령기 가계를 대상으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파악하였다. 노후준비 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지의 여부를 종속변수로 하고 일반적 특성인 연령, 교육수준, 직업, 월평균 가계소득과 노후준비 특성인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과 은퇴 후 예상생활비(%), 사교육비 지출 특성인 사교육비 지출 부담 정도와 증액의향, 총 사교육비, 생활비 감액여부와 부업 유무를 독립변인으로 하여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10>에 제시된 바와 같다.

<표 10>에서 로그오즈계수(log odds coefficients)는 오즈비(odds ratios)에 로그를 취한 값이며, 오즈비는 각각의 독립변수들이 사교육비지불을 위해 노후자금 사용하는 선택의 오즈에 대해 갖는 영향력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1보다 크면 오즈를 증가시키고 1보다 작으면 오즈를 감소시킨다. 즉 오즈비가 1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져 있는가가 영향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오즈비로부터 1을 빼고, 여기에 100을 곱하면 독립변수가 한 단위 변할 때 오즈의 변화량 증감분을 퍼센트로 알 수 있다 (DeMaris, 1992; Pampel, 2000).

로지스틱 회귀분석에 이용된 총 14개의 독립변수들 중 5개의 독립변수가 유의도 5%이하의 수준에서 의미 있는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변수들의 영향력에 대한 설명력은 다음과 같다.

일반적인 특성 변수 중에서는 월 평균소득만 사교육비지불을 위해 노후자금 사용여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소득이 높을수록 사교육비지불을 위해 노후자금 사용하는 경향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odd와 DeVaney(1997)의 연구에서도 고소득층인

부모를 가지고 있는 가계가 자녀교육비를 위해 은퇴자금을 덜 사용한다는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자녀학령기 가계의 은퇴관련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사교육비지불을 위한 노후자금 사용여부에 있어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특성 변수를 살펴보면, 사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사교육비 증액의향, 생활비 감액/증액 유무, 부업 유무에서 사교육비지불을 위해 노후자금 사용여부에 유의한 영향력을 보여주었다. 사교육비 지출에 있어 부담을 느낄수록 사교육비지불을 위해 노후자금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사교육 부담이 높은 가계는 저축을 감소시킴으로 사교육비를 충당하고 있다는 이성림(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노후자금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도 사교육비 지출이 줄어들지 않을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생활비를 줄인 적이 있는 가계일수록, 배우자가 사교육비지불을 위해 부업을 하거나 새로운 직업은 얻은 적이 있는 가계일수록 그렇지 않은 가계보다 사교육비지불을 위해 노후자금 사용하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총 사교육비지출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0>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로지스틱 회귀분석 -

	독립변수 (괄호 안은 준거집단)	coefficient	s.e	odds ratio
일반적 특성	연령(30대)			
	40대	-0.199	0.441	0.820
	50대	0.208	0.637	1.231
	교육수준(고졸이하)			
	대학교졸	0.449	0.443	1.567
	대학원졸 이상	-0.507	0.558	0.602
	직업(생산·판매직)			
사무직	-0.521	0.464	0.594	
전문·관리·기술직	-0.075	0.470	0.928	
	월평균가계소득	-0.002*	0.001	0.998
노후준비특성	은퇴 노후자금	-0.007	0.004	0.993
	은퇴 후 예상 생활비(%)	0.000	0.006	1.000
사교육비지출	사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0.493*	0.227	1.637
	사교육비 증액 의향	0.363*	0.180	1.438
	총 사교육비	0.007	0.007	1.007
	생활비 감액 여부(있다)	1.963***	0.357	7.121
	부업 여부(있다)	0.915*	0.404	2.497
	상수	-2.905(1.288)		
	chi-square	97.395***		
	-2log likelihood	239.066		

*p<.05, **p<.01, ***p<.001

V. 결론 및 제언

노후준비는 생애주기 전체에 걸쳐 이루어져야 하는 매우 중요한 장기 재무목표이다. 하지만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자녀학령기 가계는 급증하는 사교육비 부담으로 인해 정상적인 소비지출과 저축이 위축될 뿐 아니라, 노후준비를 위한 재정적 여력의 감소를 경험하고 있다. 사교육비 부담이 노후불안의 주요원인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는 가운데, 사교육비 지출 부담과 노후준비자금을 함께 다룸으로서, 자녀학령기 가계의 재무행동을 파악하고 두 가지 재무목표를 연관적으로 분석하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자녀를 가진 자녀학령기 가계 304가계를 대상으로 노후준비 실태와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알아보고,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많은 가계의 사회경제적 특성, 노후준비특성, 사교육비 지출특성을 비교하며, 나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 밝혀진 결과에 대한 요약 및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 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학령기 가계의 80%가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있고, 은퇴 후 안정된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한 달 평균 생활비는 현재 생활비의 68%정도로 조사되었다. 노후자금을 준비하는 집단은 월평균 50만원을 노후자금으로 저축하고 있었는데, 대부분 노후준비자금이 있어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며 노후준비방법에 대해서도 불만족하다는 비중이 높았다.

둘째, 자녀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는 약 44만원이고,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가계의 자녀 1인당 사교육비는 약 35만원, 첫 자녀가 중학생인 가계의 사교육비는 약 48만원, 첫 자녀가 고등학생인 가계의 사교육비는 약 61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 정도는 3.8점(5점 만점, 점수 높을수록 부담)이었고, 사교육비를 증액할 의향은 3.56점(5점 만점, 점수 높을수록 의향 높음)으로 사교육에 대한 부담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가계는 소득액의 17%를 사교육비로 지출하고 있었고, 조사대상의 70% 이상이 사교육비를 지불하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저축액, 투자액을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와 그렇지 않은 많은 가계의 일반적 특성, 노후준비 특성, 사교육비 지출 특성을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일반적 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가구주 교육수준이 대졸 이하인 가계가, 월평균 가계소득이 상대적으로 적고, 가구주의 퇴직금제도가 없거나, 학령기 자녀수가 많을수록, 은퇴 후 기대경제수준이 현재가 더 높은 집단이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후준비 특성의 차이를 살펴보면, 월 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이 적고, 노후준비자금과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가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사교육비 지출특성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자녀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많고, 사교육비 지출부담 정도가 크며, 사교육비 증액 의향 역시 높으며,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생활비를 줄이거나 부업 및 새로운 직장을 얻은 등 다른 지불 원천을 이용한 비율이 높은 가

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비율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선택을 결정하는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월 평균 가계소득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가계소득이 낮을수록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다. 또한 사교육비 지출 부담정도, 사교육비 증액의향, 사교육비 지불을 위한 생활비 감액여부와 부업 수행여부가 유의한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교육비 지출 부담이 크고, 사교육비 증액의향이 높을수록,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생활비를 감액한 가계와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부업이나 새로운 직장을 얻은 가계의 경우에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본 연구는 자녀학령기 가계의 중요한 재무목표 중 하나인 노후준비에 자녀 사교육비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자녀학령기 가계의 은퇴재무설계 실태와 사교육비 부담의 현 주소를 조명하고, 자녀학령기 가계의 노후준비를 위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데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과 제언을 덧붙이고자 한다.

첫째, 자녀학령기 가계는 대부분 노후준비자금을 보유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그 규모나 방법 측면에서 불충분, 불만족하는 경향이 높았다. 이는

많은 사람들이 노후준비에 대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준비는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 그 중에서도 자녀교육비 부담이라는 재정적 문제로 인해 원하는 만큼 노후준비를 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특히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서 생활비를 줄이고, 저축이나 투자액을 줄인 가계가 75%를 상회하는 결과는 자녀교육비 부담이 기본적인 생활권이 축소시킬 만큼 심각한 재정적 부담임으로 의미한다.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의 월평균 노후준비자금 지출액이 그렇지 않은 가계 보다 유의하게 적고, 노후준비자금과 노후준비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 역시 사교육비 부담이 노후준비를 희생시키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집단의 자녀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가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지 않은 집단의 사교육비보다 유의하게 높았고, 사교육비 지출에 대해 느끼는 부담정도도 높았다. 그러나 이들 집단은 앞으로 사교육비를 더 증액하겠다는 의향 역시 높았다.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노후준비자금의 희생이 필요할 것이다. 경제적 부담을 느끼면서도 사교육비를 증액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교육에 대한 과도한 열풍을 보여주는 것이며, 이러한 열풍이 잠잠해지지 않는 한, 효율적인 은퇴설계와 여유로운 노후생활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가계 중에서 노후준비자금으로 사교육비를 지불하는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이 그렇지 않은 가계 보다 유의하게 높았는데, 자녀가 중, 고등학교로 진학할수록 더 많은 사교육비가 들어간다는 사실을 인지할 때, 초등학교 때부터 노후자금을 줄여 교육비를 충당하는 행위는 상당히 위험한 행동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정책 측면에서는 사교육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공교육의 내실화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고, 가계의 측면에서는 재정목

표를 정확하게 인지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재무설계를 수행하여 생애주기 전체에 걸친 재정자원의 배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자녀교육을 위해 노후준비를 포기하는 비합리적인 행동이 지속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재무교육과 사회적 조력이 필요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교육비만을 조사하였는데, 공교육비 까지 합하게 되면 가계의 자녀교육비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 또한 매년 5%~10%씩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대학등록금은 또 하나의 막대한 재정적 과제이다. 본 연구는 자녀 학령기 가계의 사교육비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노후자금을 사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만 질문하였다. 그러나 향후 연구에서 보다 공신력 있고 광범위한 자료를 이용하여 유치원부터 대학원에 이르는 총교육비가 부모의 노후준비와 은퇴 후 생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실제로 희생시킨 노후자금의 규모가 어떠한지, 자녀교육비 한 단위를 더 충당하기 위해 어느 정도의 노후자금을 포기해야 하는 지를 추정하는 등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시도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본 연구에서는 가구주가 30대-50대 자녀학령기 가계의 재무목표를 자녀교육비와 노후준비로만 보았다. 하지만 이 시기는 생애주기에 따라 자녀교육비, 노후준비 뿐만 아니라 주택마련과 자녀결혼자금 마련 등 여러 가지로 얽혀있는 시기이기도 하다. 즉 첫 자녀가 초등학생인 가계와 첫 자녀가 중·고등학생 인 가계는 생애주기별로 추구하는 재무목표에 차이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경자(2001). 인터넷 재무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양식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9권 6호, p.207-220.
- 김경자(2003). 인터넷상의 재무 설계 관련 프로그램 실태와 평가,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1호, p.103-111.
- 김병주(1996). Korean Financial Liberalization(1980-1995), 서강대학교 경제연구소, 서강경제논집.
- 김성숙·박운아(1992). 도시가계의 경제적 노후 준비행동과 관련요인 연구, 소비자학 연구, 제3권 2호, p.45-57.
- 김순미·양정선(1994). 가계재무관리 유형에 따른 은퇴계획, 대한가정학회지, 제32권 5호, p.45-54.
- 김인숙·여정성(1996).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관련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p.137-149.
- 김은정(1993). 노후를 대비한 재정계획 및 재정계획 수행: 서울시 중년기 가계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숙(1983). 장기 생활설계를 위한 가계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권 2호, p.59-73.
- 경향신문(2007). 은퇴 준비 전혀 못해 60%, 2007. 7. 3.
- 고정옥(2004). 사교육비 지출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감에 관한 연구, 제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공은배·배성준(1994). 한국 교육투자의 실태와 수익률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p.84-85.
- 공은배·천세영(1989). 한국교육투자정책의 진단, 한국교육개발원.
- 대한상공회의소(2006). 직장인 노후대책에 관한 실태조사.

- 도명숙(1998). 중·고생자녀를 둔 중년기 가정주부의 가계관리행동과 가계 관리 만족도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문숙재·김순미·김성희(1996). 자녀의 인적자본 형성을 위한 교육비 지출의 결정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2호, p.171-184.
- 박미희·여정성(2000). "개인과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 유형분석," 대한가정학회지, 제38권 12호, p.189-206.
- 박주영·최현자(2002). 시장 환경의 변화에 따른 가계포트폴리오 변화유형 및 각 유형별 가계특성 분석: IMF 경제위기동안의 재무의사결정 유형,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0권 6호, p151-162.
- 범수인·문숙재(1992).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투자계획에 관한 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30권 1호, p.197-217.
- 배문조·전귀연(2004). 은퇴에 대한 태도 및 은퇴준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2호, p.89-120.
- 백은영·문숙재(2005). 가족생활주기 관점에서 본 가계의 재정목표, 문제 및 만족도에 관한 연구: 질적 접근방법의 적용, 소비자학연구, 제16권 2호, p.87-109.
- 배희선·최현자(1996).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농가주부의 재무관리행동과 재정만족도: 화폐 관리행동, 자녀교육비 대비행동 및 노후준비행동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4권 3호, p.167-179.
- 손상희 외(2003). 중년기 가족의 교육비 문제와 디지털 시대의 해결방안 모색,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1권 1호, p.49-60.
- 손선경·임정빈(1985). 노후생활 대책에 대한 성년층의 의식연구 :서울과 안동지방을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1호, p.107-125.
- 이성림(2005). 사교육비 부담과 가계의 소비지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3권 3호, p.63-76.

- 이성림(2006). 도시가계의 사교육비 부담과 지출전략, 소비자학 연구, 제17권 2호, p.115-131.
- 이기영 외(1995). 서울시 아파트 거주 중년기 가정의 생활실태와 문제 (II): 경제생활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33권 5호, p.115-127.
- 이승신(2002). 가계의 사교육비 지출과 경제적 복지, 대한가정학회지, 제40권 7호, p.211-227.
- 이승신(2003). 가계의 재무구조가 사교육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소득계층별 접근연구,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11호, p.151-169.
- 이은실·최현자(1998).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소비자포트폴리오 분석,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16권 3호, p.111-122.
- 이은우(2004). 사교육비 지출행위에 대한 경제 분석, 경제연구, 제22권 2호, p.1-31.
- 이지은(1999).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이행욱(1989). 가족생활주기와 결혼적응의 고찰,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경자(2002). 중년층의 노후준비가 중년기 위기감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장순(1990). 중년기 직장남성의 노후생활계획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임정빈·손선경(1985). 노후생활 대책에 대한 성년 층의 의식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3권 1호, p107-125.
- 여윤경(2005). 한국 중산층 가계의 노후자금 적정성, 한국노년학, 제25권 1호, p21-36.
- 우재룡(2006). 행복한 노후설계 무작정 따라하기. 길벗, p.24-44.

- 유영주 외(1984). 한국도시가족의 가족생활주기 모형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p.111-129.
- 윤숙현(2002). 노년기 재무설계에 관한 기초연구,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 제10권, p.93-100.
- 양세정·이윤금(1997). 가계의 교육비지출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 소비자학연구. 제8권 2호, p.81-101.
- 양정선·김순미(2003). 가계의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사교육을 중심으로, 대한가정학회지, 제41권 5호, p.221-232.
- 여윤경·오정근(2005). FP 기본지식, 금융연수원.
- 연합뉴스, 사교육비 부담 OECD평균 4배..최고수준. 2007. 10. 29.
- 연합뉴스, 치솟는 사교육비 서민 허리휨다, 2007. 10. 29.
- 지영숙·최보아(2002). 은퇴기 생활설계를 위한 진단 척도 개발- 도시가정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 제5권 1호, p.111-122.
- 조선일보(2008). 사교육비 조사 결과. 2008.02.22.
- 조희금(1984). 가정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저축행태분석. :대구시 주부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권 1호, p.57-87.
- 주소현(2007). 근로소득장의 은퇴준비 현황과 은퇴소득 충분성. 경제학 공동학술대회 논문집. 8-15.
- 차경옥·박미연·김연주(2007). 20·30대 근로자의 은퇴재무설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6권 1호, p.149-163.
- 최상근 외(2003). 사교육비 실태 조사 및 경감 대책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 하나은행-한국갤럽 공동조사(2007). 한국인의 은퇴준비 현황과 의식: 2007년 하나은행-한국갤럽 공동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 한국 소비자단체협의회. 서울지역4년제 대학 수험생 및 학부모 523명 실태조사, 서울YMCA.

- 한국 소비자 원(2007). 국민소비행태 및 의식구조.
- 한국일보(2007). 은퇴준비 왜 못하나 봤더니... 자식 때문에, 2007. 7. 3.
- 현대경제연구원(2007). 사교육, 노후 불안의 주된 원인-사교육 실태조사 및 시장규모 추정, 한국경제주평, 246.
- 홍성희·김순미·김혜연(2006). 남성봉급생활자의 은퇴 전 생활설계프로그램.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3호, p.95-115.
- 홍성희·곽인숙(2006). 중년기 남녀 봉급생활자의 은퇴계획 비교 분석: 경제적 준비와 건강준비를 중심으로,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4권 1호, p.93-207.
- 홍성희·곽인숙(2007). 은퇴태도와 은퇴계획수분의 인과관계에 관한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지, 제25권 2호, p.89-104.
- 홍향숙(1997). 가족생활주기에 따른 가계의 소비생활문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최현자(2007). 우리나라 은퇴자 종합관리방안, 서울대학교.
- 최현자(2007). 재무 설계의 유용성-은퇴에의 적용, 서울대학교.
- 통계청(2007). 2007년 사교육비 실태조사 결과.
- 통계청(2006). 2006년 5월 고령층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부가조사.
- Ando, A. & Modigliani, F.(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53(1), P55-84
- Becker, G. S. & H. G. Lewis(1973), On the Interaction between the Quantity and Quality of Childre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84(2), p.279-288.
- Bryant, K. W. (1990). The economic organization of the household. NY: Cambridge University Press, Human capital: investing in

oneself and one's family. p. 168-195

Duvall, E. (1977). *Marriage and family Development*, 5th ed., Philadelphia J. B. Lippincott.

Moen, p., Huang, Q., Plassmann, V., & Dentinger, E. (2006), Deciding the future: Do dual-earner couples plan together for retirement?,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49(10), p.1422-1443.

Mittra, S. (1995), *practicing Financial Planning: A Complete Guide for professionals*, Michigan: Mittra & Associates.

Kelly J. Todd and Sharon A. DeVaney (1997), Financial Planning For Retirement By Parents Of College Students, *Financial Counseling and Planning*, 8(1), p.25-32.

ABSTRACT

Retirement Planning and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Among The Households School

Park, Mi Youn

Dept. of Family Culture & Consumer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ungshin Women's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characteristics of retirement planning and characteristics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This study is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socio-economic, retirement planning a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between those who expend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by using retirement planning and those who did not, and identified important factor to spend private education expenses by using retirement planning decision.

The questionnaires are drafted up through preliminary investigation, based on preceding studies. The households school of elementary school, middle school, high school students were the target for this study in Seoul, Gyeonggi, Incheon. The total of 304 copies of the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by frequency, percentage, average and standard deviation, T-test, chi-square tests, and a logistic regression model.

The finding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80% of households had retirement saving and 66% of householder had retirement plan. Moreover, average cost of living after retirement surveyed 68% of current cost of living. 80% of households had retirement saving and save up retirement saving 500,000 won per month, most people think that they had insufficient retirement saving and A higher percentage of dissatisfied retirement savings

Second, households spent 440,000 won for a child education per month, and people spent 350,000 won for the first children's elementary education and spent 480,000 won for the first children's middle education, spent 610,000 won for the first children's high education. It was a negativ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but children's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shows that they will continue to spend their money on private education. The attitude for preparatio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shows in the reduction of expenditure, having side business, compensation on saving.

Third, Through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 of the group who has education level below university, income level below 7 million won, and don't have retirement planning, having more children show higher willingness to pay for private education expenses.

Fourth, There is higher possibility or probability to spend the retirement planning for private education expenses from income of household economy, the burden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increasing intent of private education expenditure, having a room for decreasing the living expenses or not, having side business or not.

--	--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본 설문지는 은퇴 후 노후자금준비와 사교육비 지출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본 조사는 무기명으로 실시되며 학문적 목적을 위한 통계처리 외의 다른 용도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귀하의 성의 있고 솔직한 답변이 연구의 귀중한 자료가 되오니 한 문항도 빠짐없이 응답해 주실 것으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08년 2월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가족문화소비자학과
석사과정 박미연

(문의:010-7769-7730)

1. 다음은 은퇴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1. 귀하 가게의 주요 재무문제는 무엇입니까? 다음 중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순서대로 3가지를 골라 번호를 기입해 주십시오.(기타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 | | |
|---------------|-----------------------|
| 1. 자녀 교육비 | 2. 자녀 결혼 자금 |
| 3. 주택마련 | 4. 자동차, 가구 등 고가 내구재구입 |
| 5. 건강관리 및 의료비 | 6. 노후 생활 대비 |
| 7. 부채상환 | 8. 일상생활비 부족 |
| 9.기타() | |

2. 가게의 경제수준을 다음과 같이 9단계로 나눈다고 가정할 때,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현재 귀하 가게의 경제수준과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수준을 숫자로 표기해 주십시오.

1	2	3	4	5	6	7	8	9
하-----			중-----			상-----		

- 1) 현재의 경제수준 ()
- 2) 은퇴 후 예상되는 경제수준 ()

3. 귀하께서는 은퇴 후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위해 필요한 한 달 생활비가 현재 생활비의 몇%정도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_____ %

4. 귀하께서는 은퇴 후 생활을 위해 노후자금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 ① 하고 있다. (5번 7번 순서로 가십시오)
- ② 하고 있지 않다. (6번 7번 순서로 가십시오)

5. 다음 중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노후자금 방법을 모두 골라 표시해 주십시오. (기타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① 정기예금 ____	② 정기적금 ____	③ 주식투자 ____
④ 채권투자 ____	⑤ 간접투자상품(펀드) ____	⑥ 부동산투자 ____
⑦ 국민연금 ____	⑧ 퇴직금, 퇴직연금 ____	⑨ 개인연금저축/신탁 ____
⑩ 연금보험 ____	⑪ 기타 (_____)	

5-1. 귀하께서 이용하고 계시는 노후자금 마련 방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 한다	매우 만족한다
노후자금 마련방법					

5-2. 국민연금을 제외하고, 노후준비자금으로 월 평균 얼마를 지출하고 계십니까?

월 _____ 만원

5-3. 귀하께서 노후준비자금으로 지출하고 계신 월 평균 금액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 부족하다.	부족하다	보통이다	충분하다.	매우 충분하다.
노후준비자금 금액					

6. 현재 노후자금 준비를 하지 않으시는 주된 이유는 무엇입니까?(기타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 ① 주택마련 때문에
- ② 자녀양육·교육비 때문에
- ③ 대출상환 때문에
- ④ 생활비가 부족해서
- ⑤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 ⑥ 노후자금을 따로 준비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 ⑦ 기타()

7. 귀하의 이용여부와 관계없이, 다음 노후자금 마련 방법 중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는 방법을 순서대로 3개를 골라 주십시오.(기타는 직접 기입해 주십시오.)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정기예금 _____	② 정기적금 _____	③ 주식투자 _____
④ 채권투자 _____	⑤ 간접투자상품(펀드) _____	⑥ 부동산투자 _____
⑦ 국민연금 _____	⑧ 퇴직금, 퇴직연금 _____	⑨ 개인연금저축/신탁 _____
⑩ 연금보험 _____	⑪ 기타 ()	

II. 다음은 사교육비와 관련하여 귀하께서 가지고 계신 생각을 묻는 문항입니다.

사교육비는 공교육비와는 달리 공공회계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학부모 내지는 학생이 교육을 위해 직접 지출하는 비용으로 학교교육이외에 지출하는 학원비, 과외비, 부교재비, 단체 활동비, 급식비, 기타 등을 말합니다.

1. 귀하의 자녀는 사교육을 받고 있습니까? 자녀 중 한명이라도 받고 있으면 받는다고 답해 주십시오.
- ① 받고 있다. (☞ 2 번으로 가십시오.)
 - ② 받고 있지 않다.

2. 자녀가 받고 있는 사교육 효과에 대해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전혀 만족하지 않는다.	만족하지 않는다.	보통이다	만족한다.	매우 만족한다.
사교육효과 만족도					

3. 자녀의 사교육을 위해 월 평균 얼마를 지출하고 계십니까?

(자녀의 학령이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고, 자녀 각각에 대해 기입해주세요. 사교육을 받지 않는 자녀도 학령을 기입해 주십시오.)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사교육비(월평균)
첫 자녀				만원
둘째 자녀				만원
셋째 자녀				만원
넷째 자녀				만원
다섯째 자녀				만원

4. 자녀의 사교육비 지출이 가계경제에 어느 정도 부담이 됩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	부담되지 않는다.	보통이다.	부담된다.	매우 부담된다.

5. 여건이 허락하면, 사교육을 더 시킬 의향이 있으십니까? 해당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매우 그렇다.

6. 귀하께서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생활비를 줄인 적이 있습니까?

① 있다. (7번 8번 9번으로 가십시오.)

② 없다. (9번으로 가십시오.)

7. 다음 소비지출 항목 중에서 어떤 항목의 지출을 줄이셨습니까? 순서대로 3가지만 적어주세요.

.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식료품비	② 피복·신발비	③ 교통·통신비
④ 주거·광열·수도비	⑤ 보건의료비	⑥ 기타소비지출
⑦ 기구집기·가사용품비	⑧ 교양·오락비	
⑨ 기타 ()		

8. 만약 사교육비 지출이 없어진다면, 다음 중 어떤 항목의 지출을 늘리시겠습니까?

1순위: _____ 2순위: _____ 3순위: _____

① 식료품비	② 피복·신발비	③ 교통·통신비
④ 주거·광열·수도비	⑤ 보건의료비	⑥ 기타소비지출
⑦ 기구집기·가사용품비	⑧ 교양·오락비	
⑨ 기타 ()		

9. 귀하께서는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저축이나 투자를 줄인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10번 ☞ 11번으로 가십시오.)
- ② 없다. (☞ 11번으로 가십시오.)

10. 만약 사교육 지출이 없다면 해당 저축이나 투자액은 어떤 목적으로 쓰일 자금입니까?(1개 이상 선택하셔도 됩니다.)

- ①. 노후준비
- ②. 내 집 마련
- ③. 여가활동(문화생활, 자기개발비)
- ④. 생활비
- ⑤. 사업자금
- ⑥. 기타 ()

11. 귀하께서는 사교육비 지불을 위해 새로운 직장을 얻거나 부업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 ① 있다.
- ② 없다.

5. 가구주가 직장을 다니고 있다면 예상은퇴 연령은 얼마입니까?

만 _____ 세

6. 가구주가 근무하는 직장에는 퇴직금 혹은 퇴직연금제도가 있습니까?

① 있다.

② 없다.

7. 귀하 가정의 월평균 소득(맞벌이이면 부부 합산)은 얼마입니까? (연간 근로소득, 이자, 집세 등의 재산소득, 사업소득, 기타 이전소득 등 모든 소득을 합한 뒤, 12로 나눈 평균액수를 적어주십시오.)

_____ 만원

8. 귀하의 현재 거주지는 어디입니까?

① 서울

② 경기도

③ 인천

9. 귀하의 현재 주택 소유현황은 어떻습니까?

① 자가

② 전세

③ 월세

④ 기타 ()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